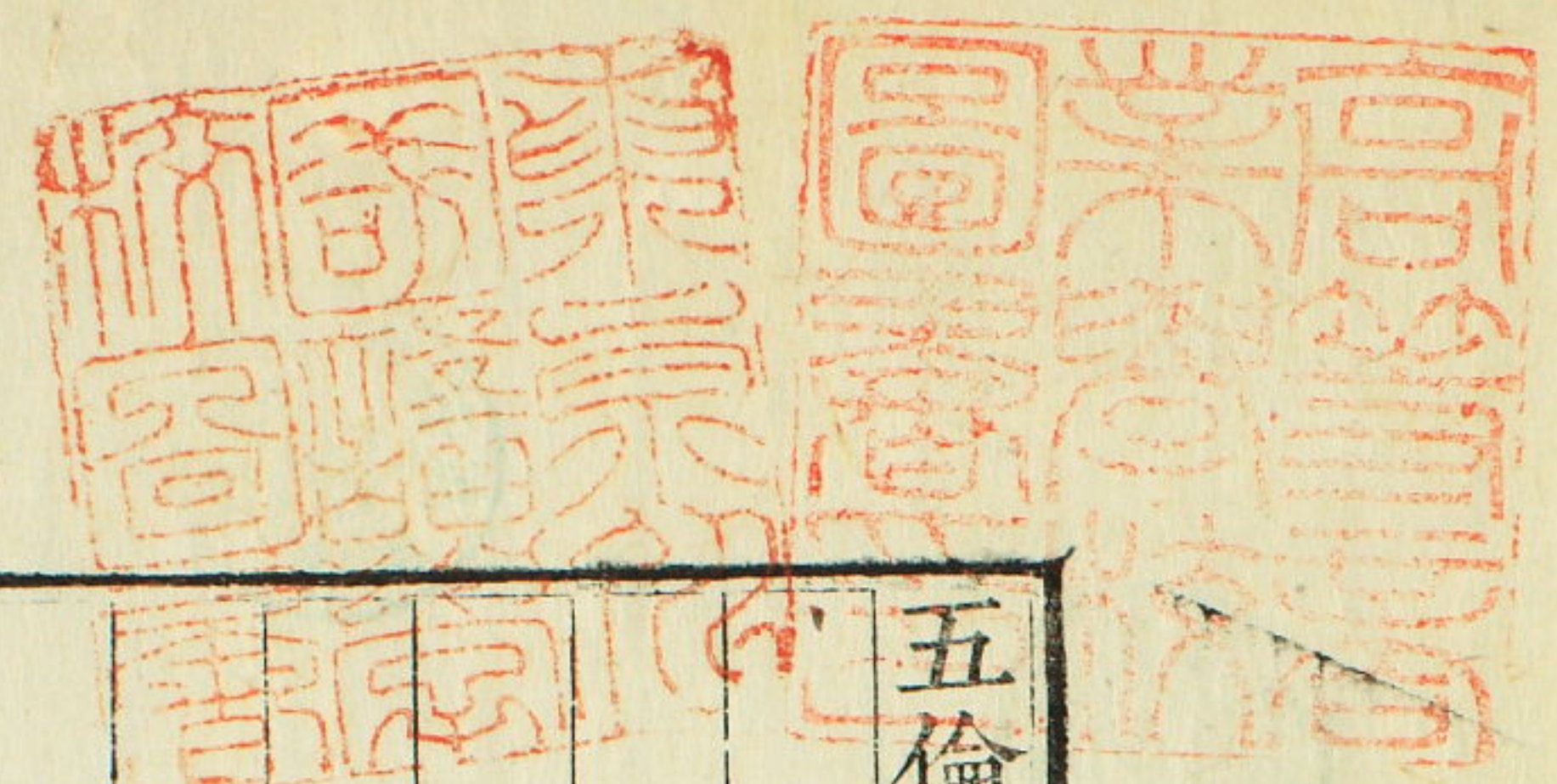


9
2470
5



第
十九
號
生
徒
用

2470
6-5



五倫行實圖卷第四目錄

兄弟

- | | |
|------|------|
| 叔壽同死 | 卜式分畜 |
| 王琳救弟 | 許武自穢 |
| 鄭均諫兄 | 趙孝就烹 |
| 繆彤自搗 | 李充逐婦 |
| 姜肱同被 | 王覽爭醜 |
| 庾袞守病 | 王密易弟 |
| 蔡廓容事 | 棘薩爭死 |
| 楊氏義讓 | 達之贖弟 |



五倫行實圖

五倫行實圖 卷四 目錄

目錄

光進反籍

德珪死獄

杜衍待兄

張存布錦

彥霄析籍

道卿引頸

郭全分財

思達義感

附宗族

君良斥妻

公藝書忍

陳氏羣食

仲淹義莊

陸氏義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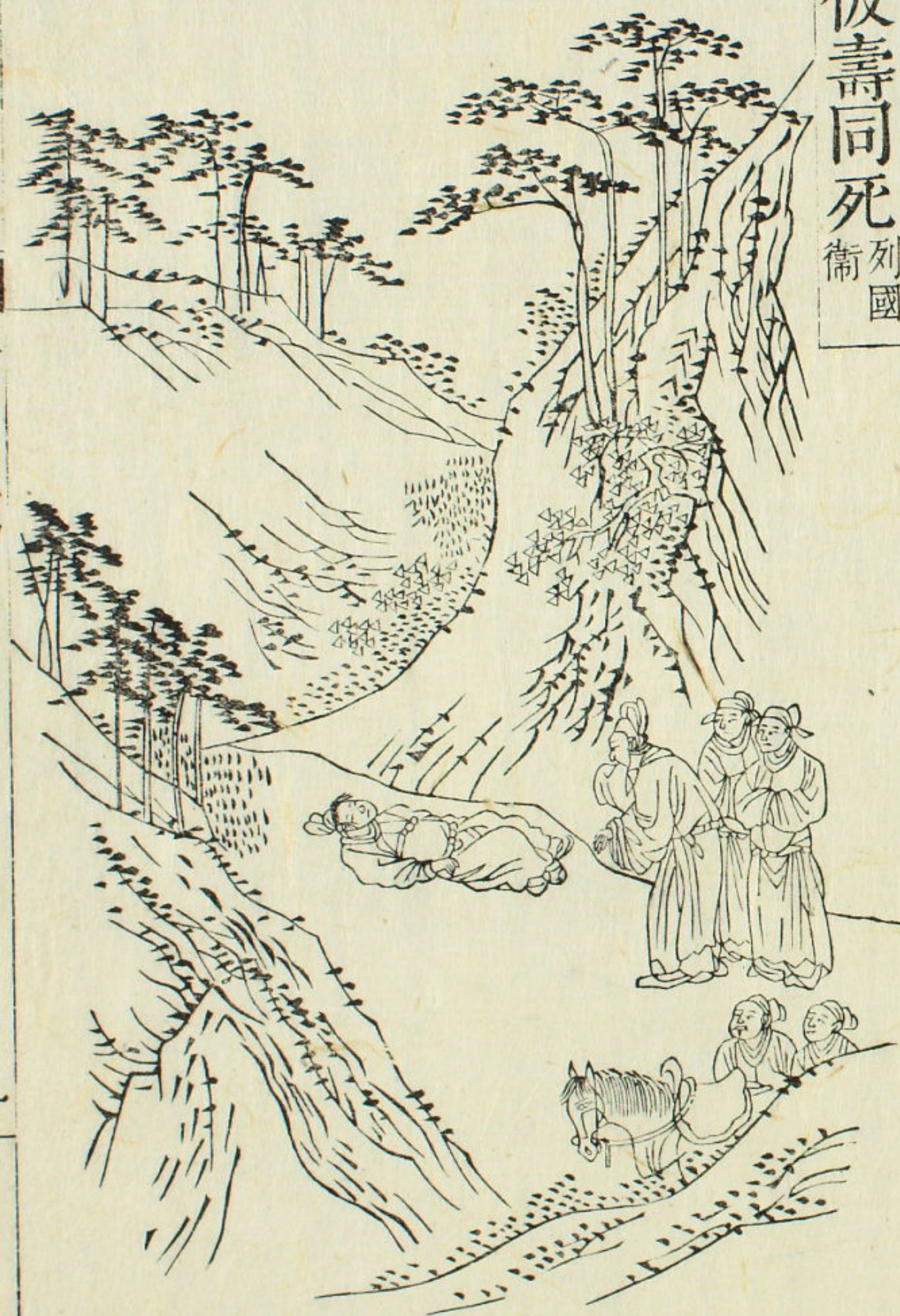
文嗣十世

張閏同爨



伋壽同死

列國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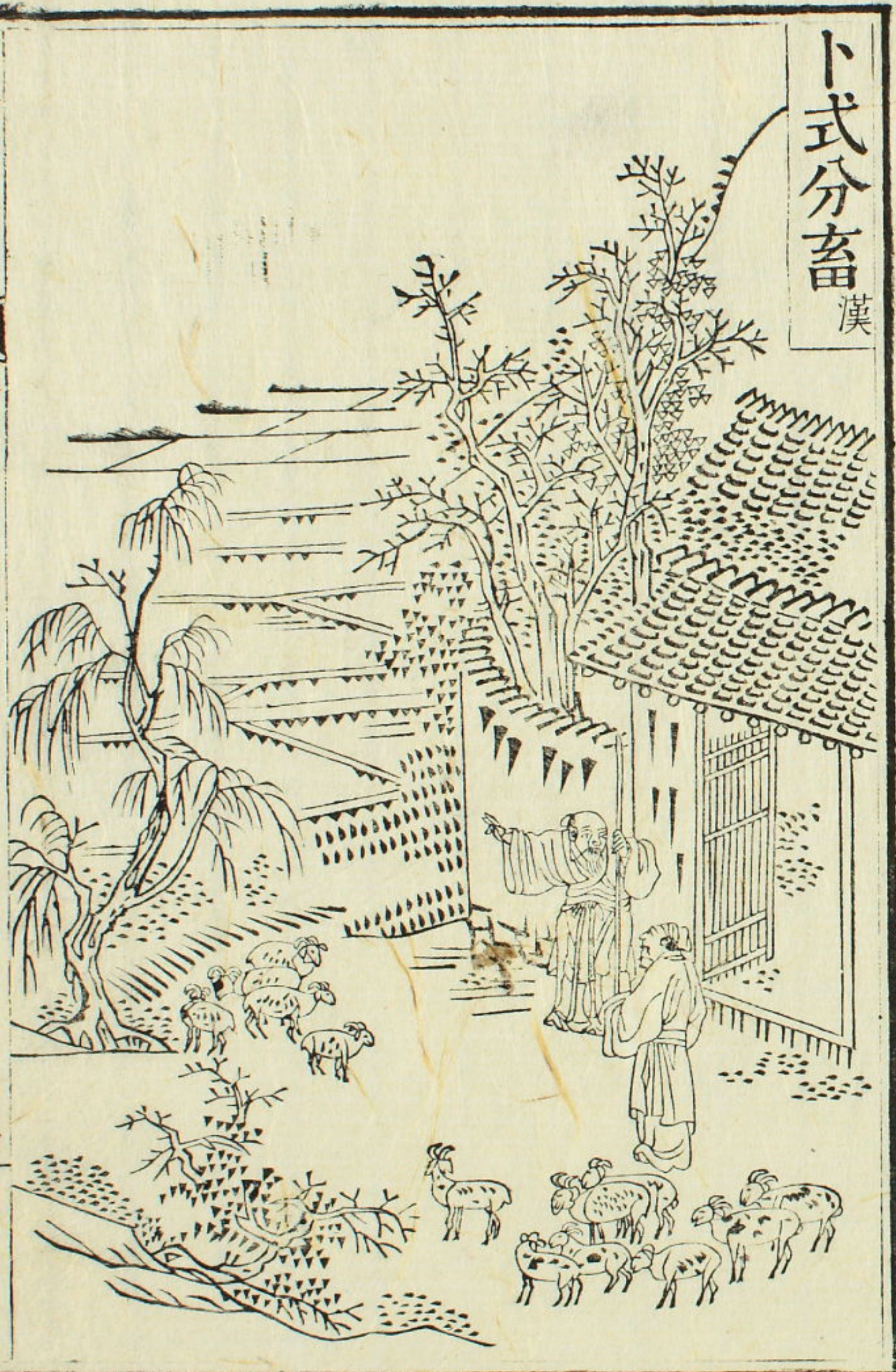
衛公子壽者宣公之子太子伋之異母弟公子朔之
 同母兄也其母與朔謀欲殺伋共讒於公公令伋之
 齊使賊先待於隘而殺之壽知之以告伋使去之伋
 不可曰棄父之命惡用子矣有無父之國則可也及
 行壽飲以酒載其旌而先往賊殺之伋至曰君命殺
 我壽有何罪賊又殺之國人傷之作二子乘舟之詩
 詩泛泛河舟同濟日迢迢齊路竊旌時自逢囂傲
 鴿原急一去那堪見兩屍 人倫遭變力難禁爭
 死悲懷兩不任爲寫新編垂萬代凜然天下弟兄
 心

위나라공조슈는선공의아들이오태조금의다
 른어미게나흔아이오공조삭의흔어미의게나
 흔형이라슈의어미삭으로더브러써하여금을
 죽이려하여흔가지로선공의게참소하니공이
 금으로하여금제나라히스신가라하고도적을
 즈레보내여죽이라하니쉬알고금의게고하여
 드라나라하대금이듯디아니하여곧오디아비
 명을브리면엇디조식이라하리오하고장차형
 흘서쉬술로금을먹여취케하고금의귀를만
 이아사몬져가니도적이귀를보고금인가하여

죽이거늘금이니르러즈오덕님군이날을죽이
 라하시니쉬무슴죄이시리오호대도적이또죽
 이니나라사름이슬허허여이즈승쥬
 라호근글을지으니라

두사름이비트
고가단말이라

卜式分畜
漢



卜式河南人以田畜爲事有少弟弟壯式脫身出獨
取畜羊百餘口田宅財物盡與弟式入山牧十餘季
致千餘頭買田宅而弟盡破其產式輒復分與之

詩世業遺財付友于脫身甘伴牧豬奴買宅何心
吾獨富千頭分向弟家輸 雖刀爭利世紛紛誰
念天親一體分他日佐時輸粟盡此心孝悌便移
君

복식은한나라하남사람이니밭갈고짐승치기
로일삼더니저근아이이셔이의당성하니식이
전택과지름을다아이를주고다만기르던양백

여구를가지고홀로산중에드러가십여년을양
을쳐양이성하여천여두에니르니전택을사두
엇더니그아이가산을다패하거늘식이문득다
시느화주니라

王琳救弟 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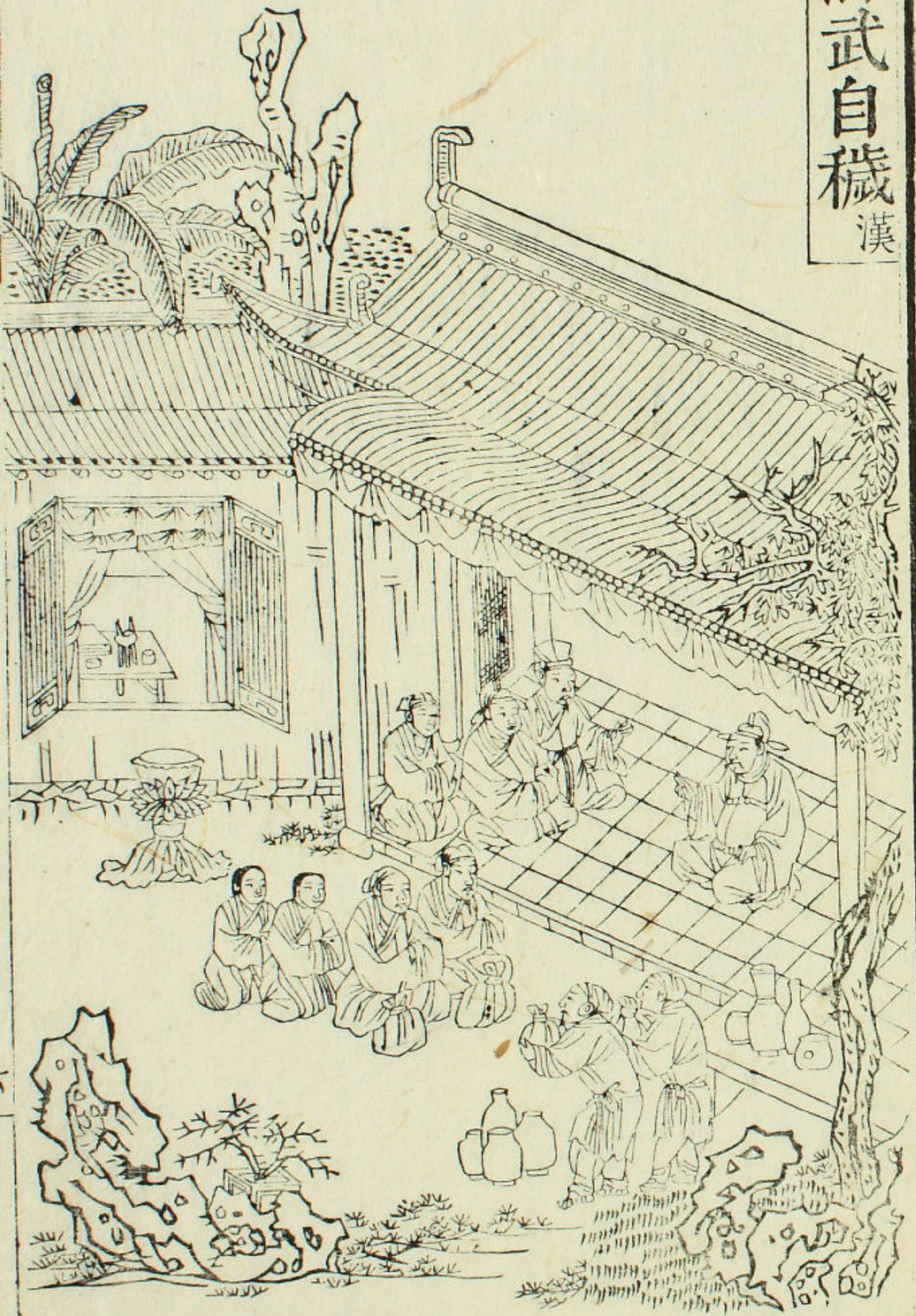
王琳汝南人年十餘歲喪父母因遭大亂百姓奔逃
 惟琳兄弟獨守塚廬號泣不絕弟季出遇赤眉為賊
 所捕琳自縛詣賊請先季死賊矜而放遣之

詩四方多難劇紛如兄弟攀號獨守廬為季投身
 先乞死豺狼安得不矜且 弟兄相愛即天彝急
 難誰知有此兒要識世人無不感請看兇醜遣歸
 時

왕님은한나라여남사람이니나히심여세에부
 모를어희고난리물만나백성이다드라나되오
 직님의형테노부모분묘를직희여울기물곳치

디아니하더니 아이나가다가 도적의게 잡히니
님이 스스로 결박하여 도적의게 나아가 묻저 즉
어디라 청호대도적이 불쌍이 너겨다 노화보내
니라

許武自穢 漢



許武陽羨人建武中會稽太守第五倫舉爲孝廉武以二弟晏普未顯欲令成名乃謂之曰禮有分異之義家有別居之道於是共割財產以爲三分武自取肥田廣宅奴婢強者二弟所得並皆劣少鄉人皆鄙武貪而稱弟能讓由是晏等俱得選舉武乃會宗族泣曰吾爲兄不肖盜竊聲位二弟年長未霑榮祿所以求得分財自取大譏今理產所增三倍於前悉推與二弟一無所留於是郡中翕然稱之

詩廉孝從前舉豈誣臨財甘作一貪夫心期二弟名成後三倍貲財盡付渠 弟顯自從兄穢日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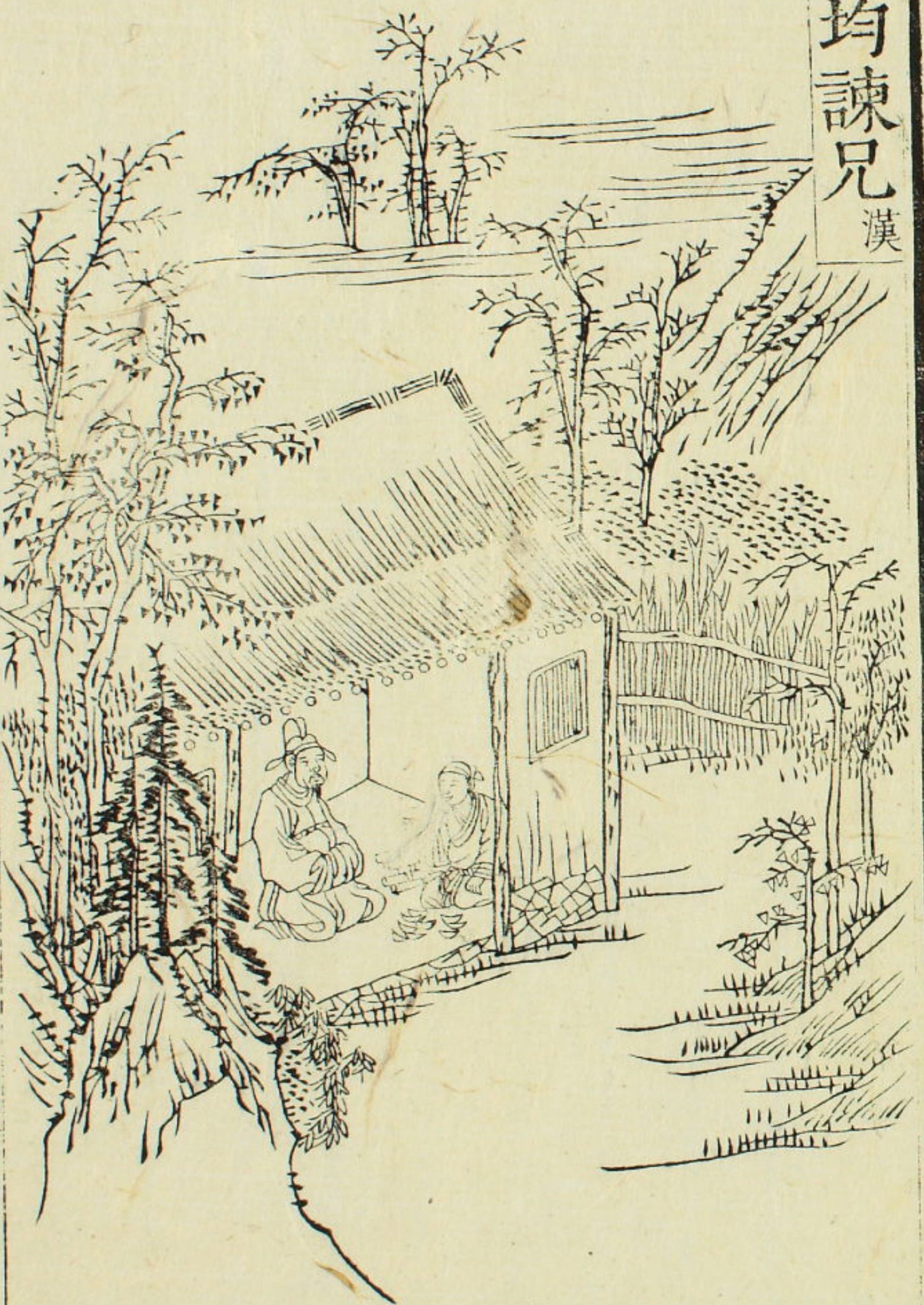
貪還釋弟榮時尋常友愛還誇俗隱德無嫌世所

譏

허무는한나라양연사람이니 회계태슈테오름이천거하여벼슬하이니 뉘그두아이 현달티못하므로 일흠을내려하여이에아으드러닐오디분지하여 각각살기능응당호도리라하고가산을삼분에는화무는도흔밭과너른집과건장호종을큰히여가지고두아으는못할거슬주니향동사람이다무의탐하를더러이너지고두아의능히스양하를일크르니일로말미암아두아이

다벼슬을어드니뫼종조를모호고울며골오디
 내형이되여블초호디라일홈과벼슬을외람히
 어더시되두아오는자라매홀로영화톨보디못
 하니내그러므로분지호를구호여스스로사디
 름을취호엿더니이제내가산이느러전의셔
 삼비나더호엿노라호고다그아올노화주호호
 나로가지디아니하니일읍사람이비로소그어
 디를일코터라

鄭均諫兄 漢



鄭均任城人兄爲縣吏頗受禮遺均數諫止不聽則脫身爲傭歲餘得錢帛歸以與兄曰物盡可復得爲吏坐贓終身捐棄兄感其言遂爲廉潔

詩取物傷廉恐累身愛兄誠意出天真已知切諫終無入甘自爲傭受苦辛傭得錢歸遺我兄包苴代此足營生坐贓一語開心病貪汚終能變潔

清

庭균은한나라임성사람이니형이 고을원이되여님의주논거슬만히밧거늘균이조간하되듯디아니하니균이나가셔몸소베으려하하남

은매돈과비단을만히어터도라와형을주고골오디지물은진하여도가히다시어드려니와탐장의좌죄하면종신드록브리이느니이다하대형이그말을감동하여드디여청년하사람이되나라

漢



趙孝沛國人遭天下亂人相食孝弟禮為賊所得將烹之孝聞即自縛詣賊曰禮久餓羸瘦不如孝肥飽賊大驚並釋之且謂曰可歸更持米糲來孝求不能得復往報賊願就烹眾異之遂不害明帝聞其行召拜諫議大夫

詩遭時不幸暗傷神人化為豺又食人自縛肥身
甘代弟野心猶感有天倫 野清何處更求糲垂
橐歸來願就烹異行能回羣盜腹高名宜徹九天
明

도요는 한나라 패국 사름이니 련해 크게 어스러

위사름이 서로 잡아먹을시 효의아이 도적의게
 잡히여 술마먹으려하거 놀회스스로결박하여
 도적을보고큰오디내아인노오리주려날만티
 슬디디못하니청권래날을술므라호대도적이
 크게놀나형테를다노흐며닐오디베도라가달
 미시를가지고오라하거 놀회구호디엇디못호
 디라다시가셔도적의게고호고숨겨디라하니
 다괴이히너겨노하보내니련지드르시고간의
 태우벼술을하니시다

繆彤自搗 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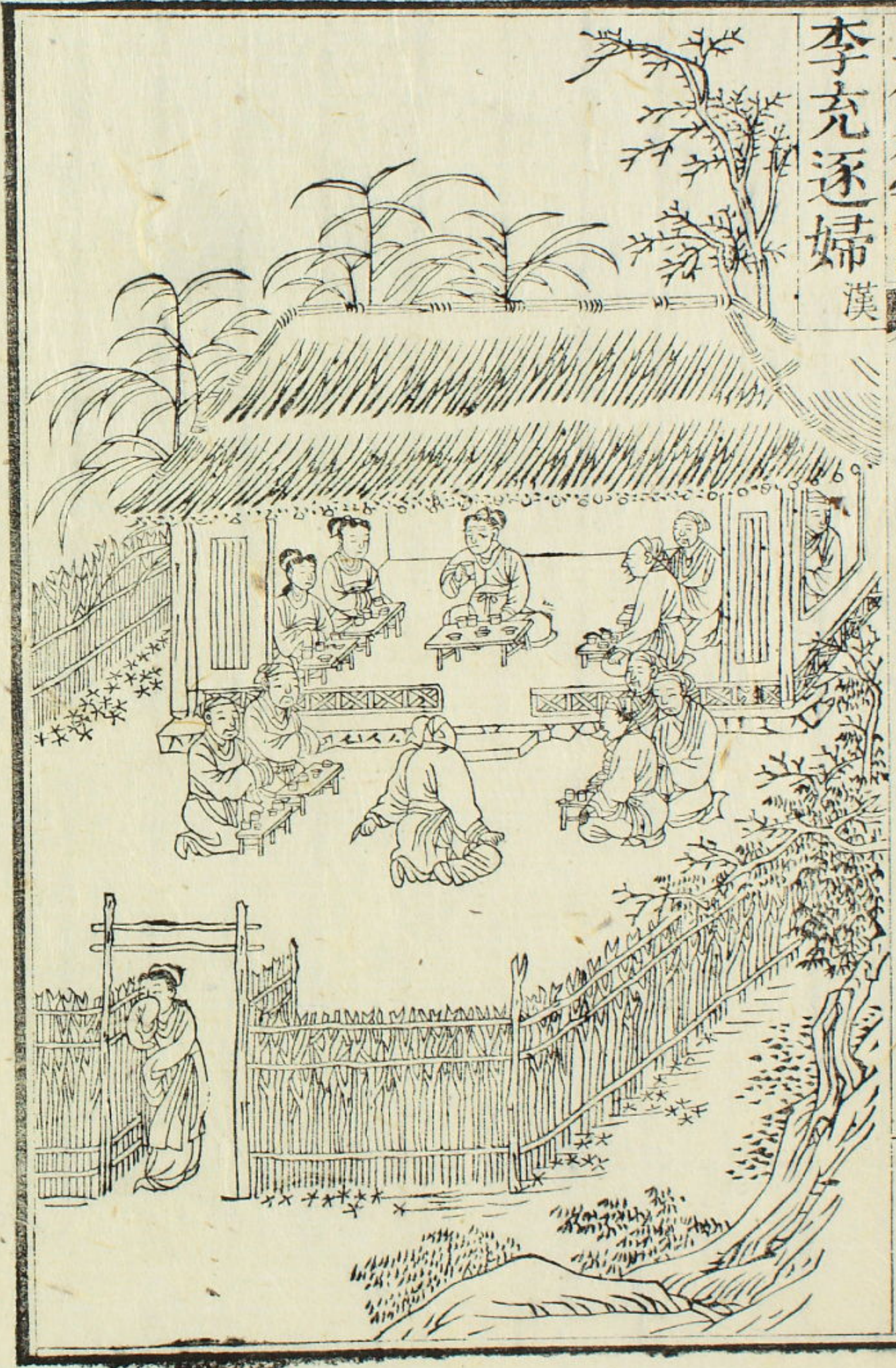
繆彤汝南人少孤兄弟四人皆同財產及各娶妻諸婦遂求分異又數有鬪爭之言彤深懷憤歎乃掩戶自搗曰繆彤汝脩身謹行學聖人之法將以齊整風俗奈何不能正其家乎弟及諸婦聞之悉叩頭謝罪遂更為敦睦之行

詩早孤諸季與同居娶婦求分罪在予掩戶自搗能感彼一家敦睦得如初 同氣相分自責深能令諸婦便回心是知友愛由天性喋血相殘獸與禽

목용은한나라여남사람이니일즉부모를여희

고형테네사람이호집에서사터니각각양가들
매여러지어미다씩로나려호고또조듯토거
늘용이갑히애들니너겨이에문을닷고스스로
티며척호여곧오디목용아네몸을닥고히실을
삼가성인의법을비호른장춧풍속을텅세호려
호거늘엇디호여능히그집을바르디못호느뇨
호대여러아호와와지어미다마리를두드려샤죄
호고드디여서로화목호더라

李充逐婦 漢



李充陳留人家貧兄弟六人同衣遞食妻竊謂充曰
 今貧居如此難以久安願思分異充偽酬之曰如欲
 別居當醞酒具會請呼鄉里內外共議其事婦從充
 置酒讌客充坐中前跪白母曰此婦無狀而教充離
 間母子兄弟罪合遣斥便呵叱其婦逐令出門婦銜
 涕而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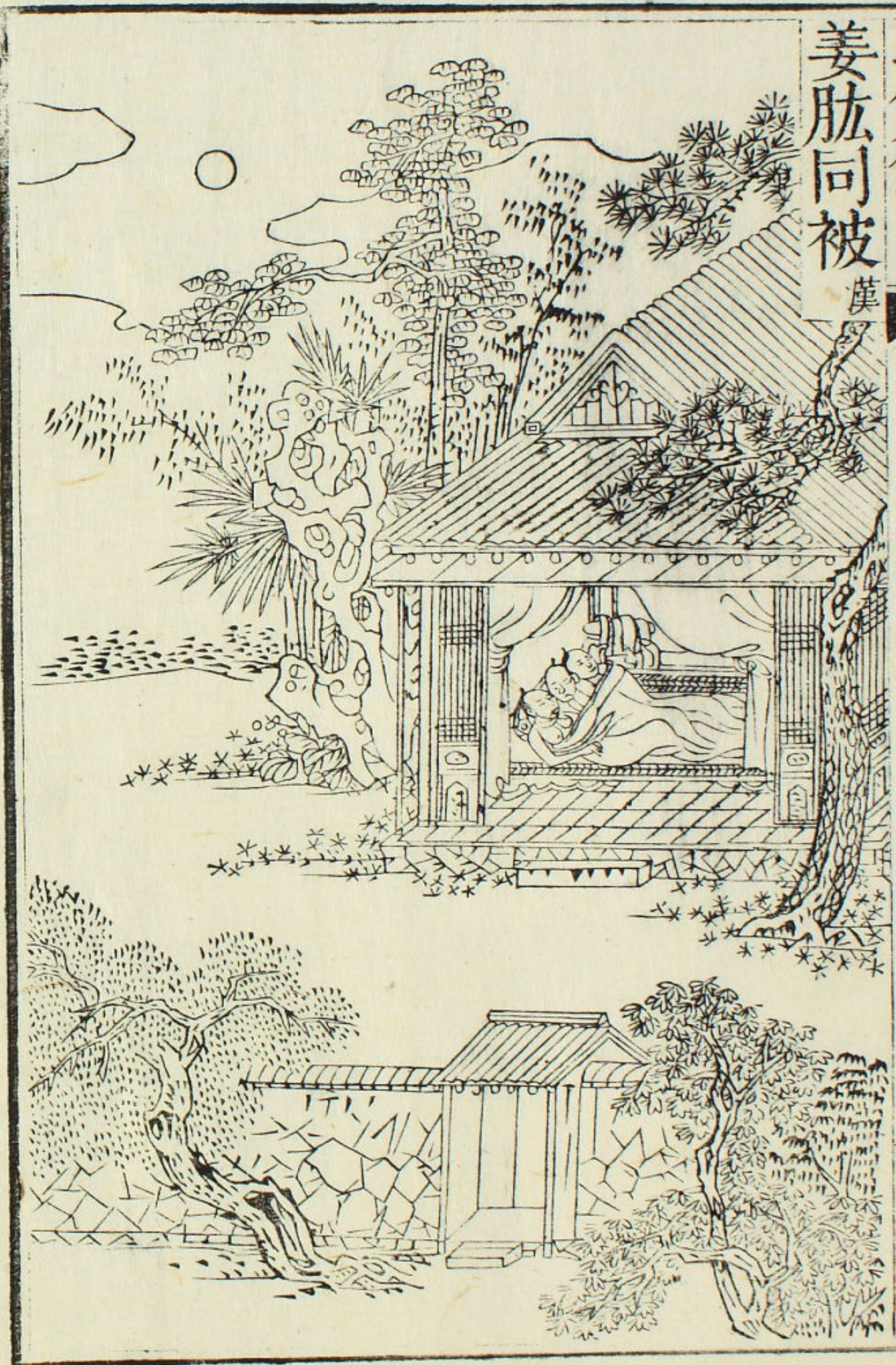
詩悍妻當日怨家貧不念鴿原骨肉親會合鄉閭
 揮婦去割情全愛篤天倫 同衣遞食意慙勤長
 枕當年不擬分何物婦人饒間舌一心愈更切簾
 頃

니 통은 한나라 진류사름이니 형테 늑인이 옷과
밥을 서로 남고 먹더니 통의 체 마만이 통드려 날
오디이 제가 난흥기이러 텃흥니 오래 흥가지로
있기 어려온디라 원컨대 각각사라 디라 흥니 통
이 거 좃허락 흥여 곧 오디 맛당이 술을 마초와 잔
치를 배플고 모올과 집사름을 다 모호고 그 일을
의논 흥리라 체그 말 디로 술을 두어 잔치 흥시 통
이 좌등의 나아가 꾸러 어의 게고 흥여 곧 오디이
겨집이 무상 흥여 통을 마르쳐 모즈와 형테 룰니
간 흥니 그 죄 맛당이 배티리로 소이다 흥고 문득

그쳐 룰크게 사뎃고 문밖기 모라 배티니 체 울며
가 디라

姜肱同被

漢



姜肱彭城人家世名族與二弟仲海季江俱以孝行
 著聞友愛天至嘗共臥起及各娶妻兄弟相戀不能
 別寢以係嗣當立乃遞往就室嘗與季江適野遇盜
 欲殺之兄弟爭死肱曰弟年幼父母所憐愍又未聘
 娶願自殺身濟弟季江言兄年德在前家之珍寶國
 之英俊乞自受戮以代兄命盜戢刃曰二君賢人吾
 等不良妄相侵犯乃兩釋之

詩二弟同居共一衾天倫情至友于深蒼皇遇難
 爭投死兩釋終能感賊心 弟恭兄友若墳篋居
 寢須臾不忍離更有至情難掩處共看爭死冒危

時

강평은 한 나라 평성 사람이니 디디로 일홈난 집
이라 두 아으 등해와 계강으로 더브러 다 호칭이
잇고 우의 지구 흥여 형테 미양 하니 불에서 자터
니 각각 땅가 들매 차 마셔 나디 못 흥되소 속을 위
흥여 곧 마드려 제방에 가 자터니 흥는 계강으로
더브러 들히 나가다가 도적을 만나 죽이려 흥거
늘 형테 죽기 룰드 도와 평이 곧 오디 아으는 나히
어리고 부되 사랑 흥시키고 또 땅가 못드러 시니 원
컨대 스스로 죽어 아으를 살려 디라 흥니 계강이

곧 오디 형은 나히 만코 덕이 높하 집에 보비 오나
라히 영결이라 빌건대 내 죽어서 형의 명을 디신
흥리라도 적이 칼을 거두고 곧 오디 그덕은 어진
사람이 어늘 우리 불량 흥여 범흥 옛노라 흥고다
노흥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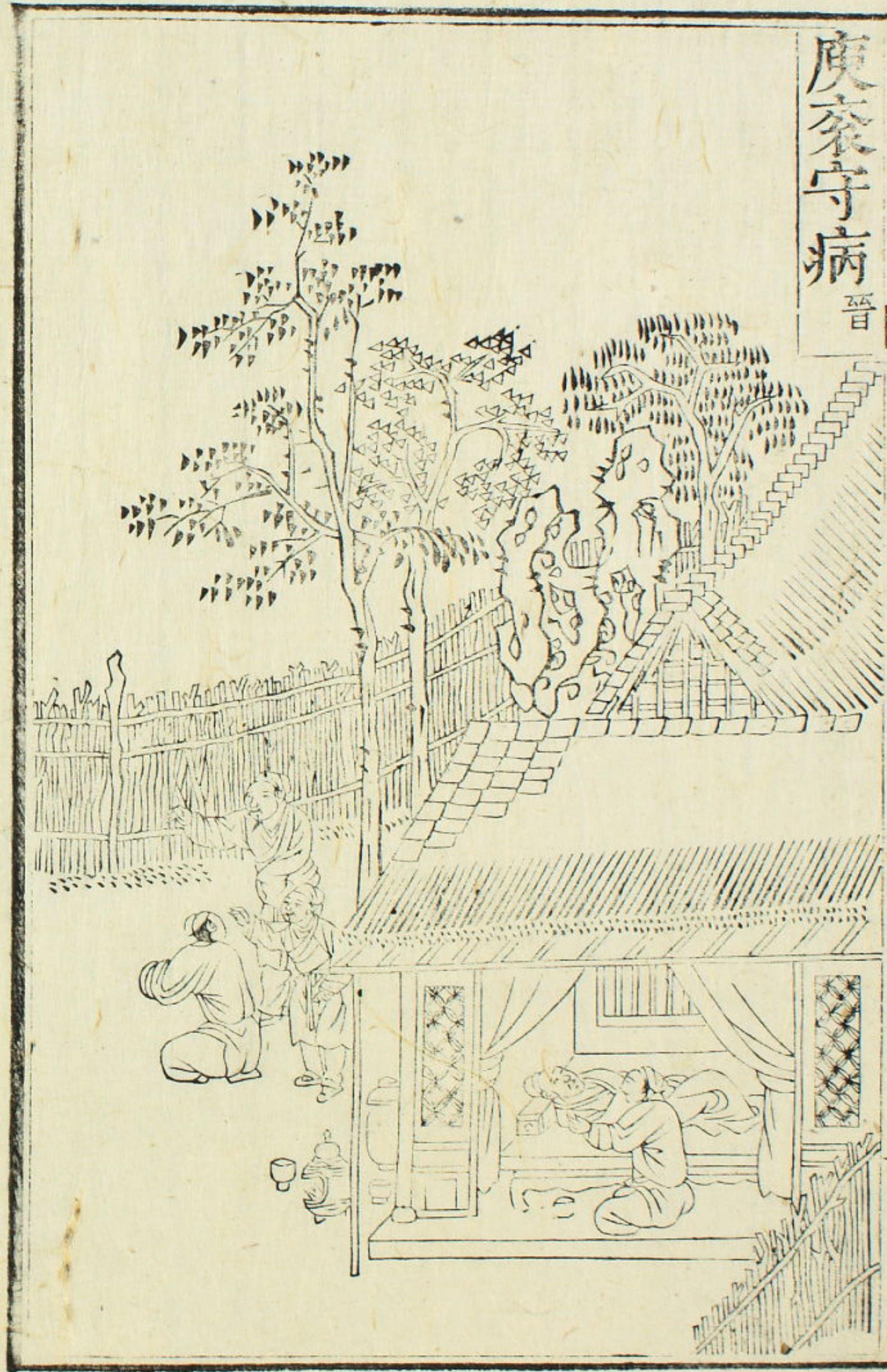
王覽祥之弟與祥友愛甚篤母朱氏遇祥無道覽季數歲見祥被楚撻輒涕泣抱持至於成童每諫其母其母少止凶虐朱屢以非理使祥覽輒與祥俱又虐使祥妻覽妻亦趨而共之朱患之乃止朱密使醜祥覽知之徑起取酒祥疑其有毒爭而不與朱遽奪覆之自後朱賜祥饌覽輒先嘗朱懼覽致斃遂止

詩
 嚚母時時虐視兄
 看兄被撻痛兒情
 身同室婦代兄嫂
 共服勤勞庶感誠
 醜非好酒何宜飲
 兄弟爭持母取翻
 從此母飧兒輒試
 周旋母子竟全恩

딘나라왕남은왕상의어미다른아이라상으로
더브러우의지극하여그어미쥬시상을무도히
더점하니남의나히두어술에상의매마즈물보
면은등을며붓잡더니남이당성할때미양그어
미를간하여말리니저기사오나오물그치더라
쥬시여러번못할일로상을부리니남이반드시
훈가지로하고또상의안히를부리면남의안히
조차코티하니쥬시민망히너겨부리디못하더
라쥬시또마만이술에등을너허상을먹이려하
니남이알고드라드러그술을마시려하대상이

또훈독이잇는가의심하여드토와남을주디아
니훈대쥬시급히그술을아사업드르니이후는
쥬시음식을상을주면남이미양몬져맛보니쥬
시남이혹죽을가두려하여다시그리아니하니
라

王倫行實圖
庾袞守病



庾袞潁川人咸寧中大疫二兄俱亡次兄毗復危殆
癘氣方熾父母諸弟皆出次于外袞獨畱不去諸父
兄強之乃曰袞性不畏病遂親自扶持晝夜不眠其
間復撫柩哀臨不輟如此十有餘旬疫勢既歇家人
乃反毗病得差袞亦無恙父老咸曰異哉此子守人
所不能守行人所不能行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
始知疫癘之不能相染也

詩當患須看友愛真撫亡扶病極勤辛十旬晝夜
終無恙癘疫從知不染人 兩兄俱沒次兄危出
次人人謹避之能守衆人難守處待看松栢歲寒

時

유곤은 딘나라 영천사람이니 함녕_{딘무례대} 등_{년호리}에
 염병이 크게 치성하여 두형이 다 염병의 죽고 버
 금형이 또 병드러 위티하니 부모와 여러 아이다
 밧그로 피하여 나가 되곤이 홀로 가디 아니하니
 여러 부형이 강권하여 피하라 하니 곧은 곧은
 디내 본디 병을 두려워 아니하니 노라 하니 그 형을
 친히 붓드러 듀야로 자디 아니하니 그 소이 또 죽
 은 형의 관을 이르문져 슬피 우니 이러 텃하니 기여
 리들을 디나 매 집사 롬이 도라와 보니 형의 병이

이의나 앓고 곤도 또 혼무양 혼디라 어 림들이 다
 곧오 디이상하니 아히 남 못 할 일을 능히 힘하
 니 치운 후에 송백이 아니 무름을 안다 하니 비로
 소 병이 능히 전염티 못함을 아랏노라 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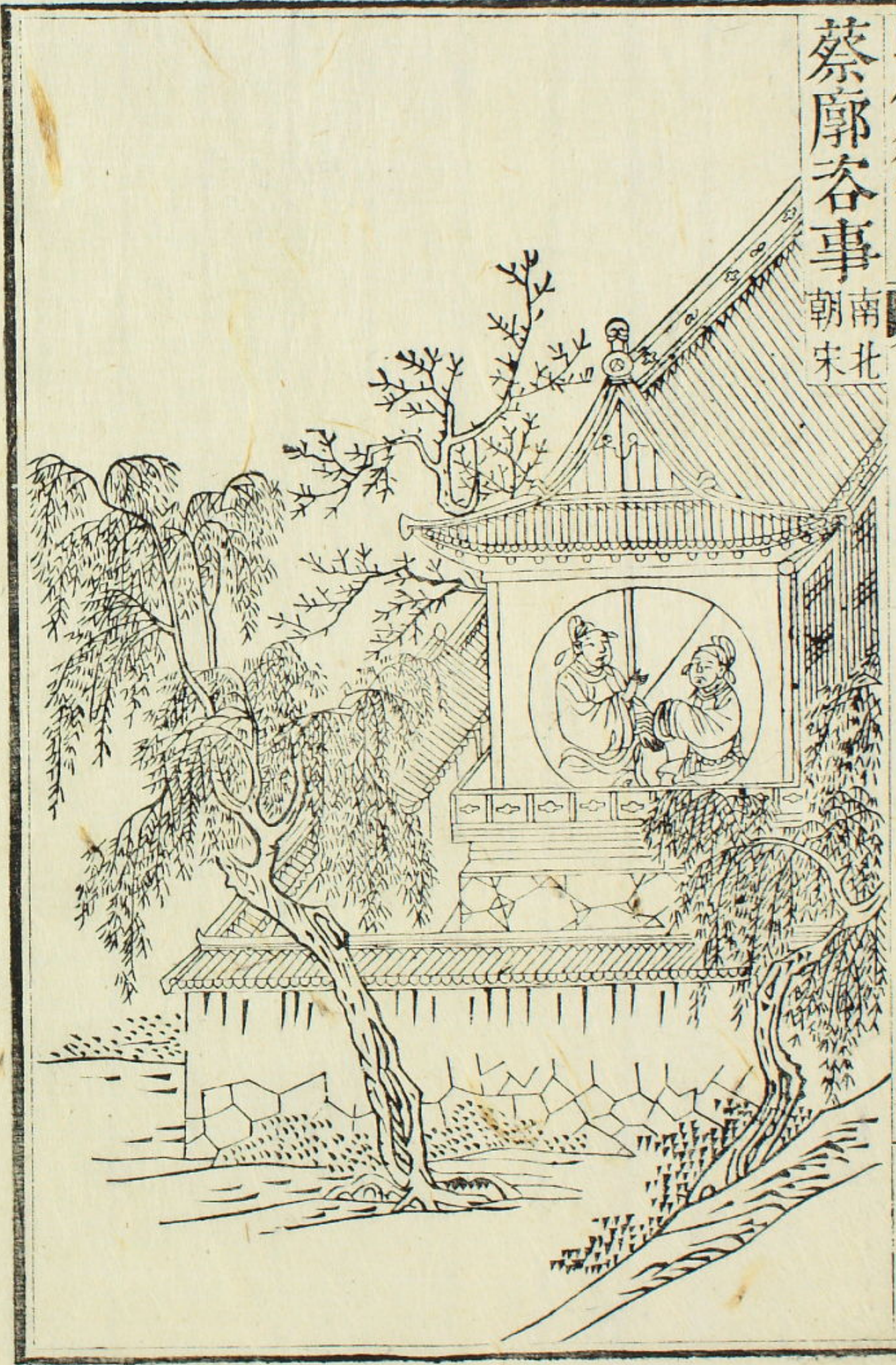
王密上郡人嘗與弟儁子元直如涼州路中糧匱密
 留儁元直於途乞丐民間比還儁為賊所掠元直逃
 逸密乃將元直追賊叩頭求哀曰人情自當皆愛其
 子但此弟未生家君見背孤遺相長以至于今請以
 元直易儁賊相謂曰以子易弟義之大也於是儁
 元直授密而去密後亡儁勺水不入口者五日雖服
 喪期年而心喪六載

詩道出涼州乞丐歸旋聞阿弟賊中圍將兒換弟
 真情切盜賊無知亦解悲 亡親遺腹只斯人相
 愛相憐若一身苟保吾兒棄吾弟九泉何以謁吾

親

왕밀은딘나라상군사름이니일즉아이준과아
들원직으로터브리길을가다가냥식이다근허
디니준과원직을길히머므로고밀이스스로
을의가밥을비러도라오니그스아도적이와서
준을잡아가고원직은도망하니밀이이에원직
을드리고도적을싸라가마리를조으며의걸음
여존오디인정이응당죽식을사랑하니다만이
아은나디아니하여셔아비죽거늘내길러내
여이날사디니르니청권대내아들과맞고와디

라하니도적이서로닐오디죽식으로버아이
맞고몬크게어딘일이라하고준과원직을다노
코가니그후에밀이죽으며준이맛시를물도아
니먹고비록기년복을입으나늑년을심상하니
라



蔡廓濟陽人奉兄軌如父家事大小皆諮而後行公
 祿賞賜一皆入軌有所資須悉就典者請焉從高祖
 在彭城妻郝氏書求夏服廓答曰知須夏服計給事
 自應相供無容別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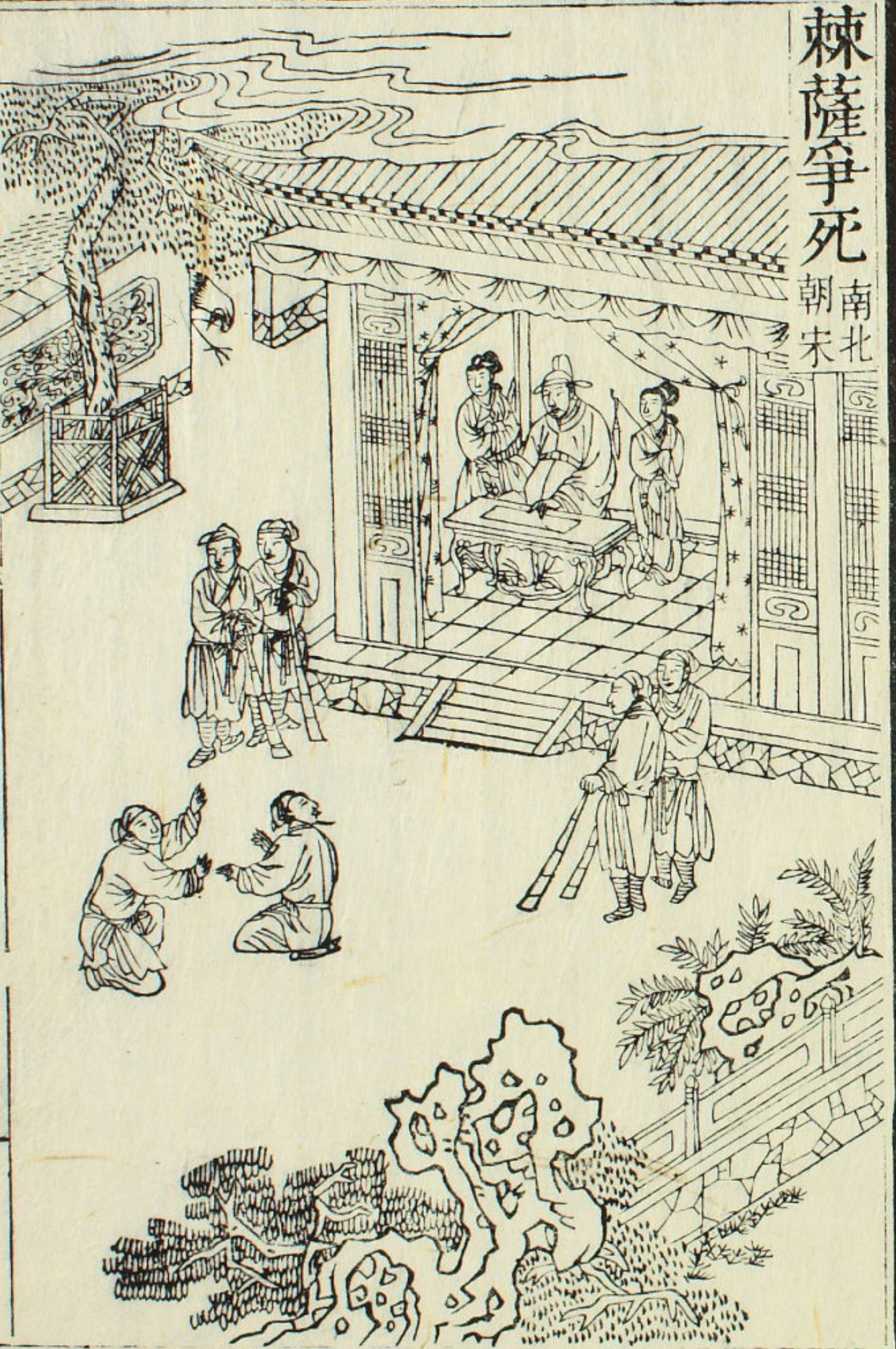
詩奉兄如父敬無違家有尊嚴孰敢私祿賜盡應
 歸一室事無專制必先咨 扈從君王苦未回妻
 求夏服寄書來計給只言存典者稍無私意汚靈
 臺

채환은송나라테양사람이니형섬기기물아비
 와우티하여집안대쇼스물다형의게취품호후

에 힘고고벼슬에나느거슬다형의게드리고
데이시면반드시맛든사름의게청하여쓰고
이님군을되셔나갓거늘그안히편디하
여름오솔구하니확이디답하되여름
오손응당맛다공급하니이시니
내셔로보벌일업다하더라

棘薩爭死

南北朝宋



孫棘彭城人事母至孝母臨亡以小兒薩屬棘大明
五年發三五丁薩應充行坐違期不至棘詣郡辭列
棘爲家長令弟不行罪應百死乞以身代薩薩又自
引太守張岱疑其不實以棘薩各置一處報云聽其
相代顏色並悅甘心赴死棘妻許又寄語屬棘曰君
當門戶豈可委罪小郎且大家臨亡以小郎屬君竟
未娶妻君已有二兒死復何恨岱表上詔特原罪州
加辟命並賜帛

詩弟兄爭死豈要名乃婦猶知棘死輕帝感三人
倫懿篤宥全門戶又褒旌 兄念慈親鞠子哀弟

思天顯克恭哉當前斧鉞爭趨赴豈料金鷄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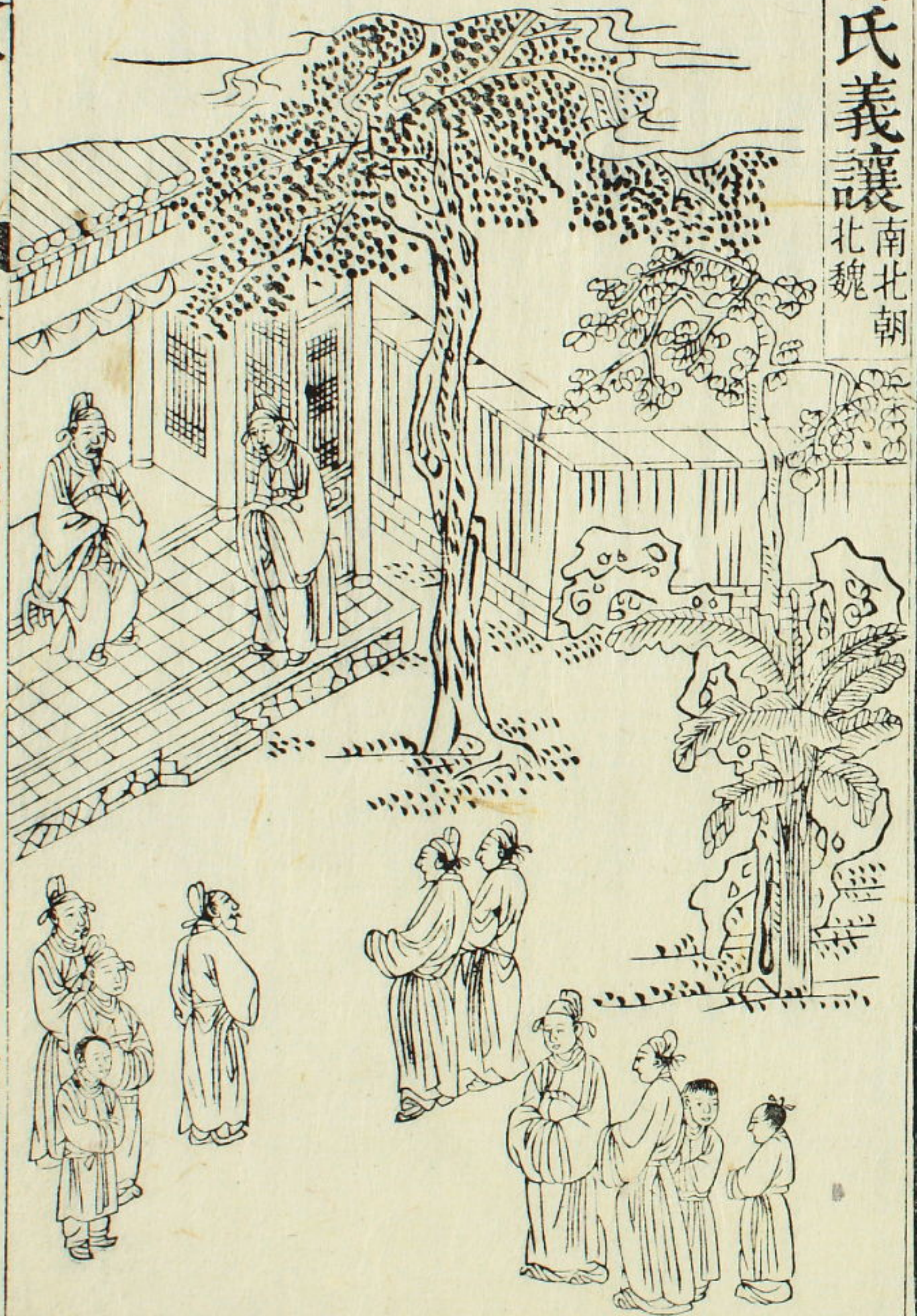
回

손극은송나라평성사람이니어미를지효로섬
기더니어미님종에어린아들로극의게부탁하
였더니나라히군정을쇼발홀시그아이군정에
색이여가다가의약을밧디못하니죽을죄라극
이관가에나아가고호되내가당이되여아으로
하여곰밧처가디못하게하니빅번죽어맛당하
디라청견대극의몸으로아으를되신하여디라
하니아이또스스로죄를당하거늘래쉬그성실

티아닌가의심흥여형테를각각두고닐오던네
 원덕로흥리라하니다깃거흥논빗치이셔죽기
 를어려워아니흥고극의안히하시또극의게말
 을부쳐올오던그덕문호를당흥여시니엇디져
 근아오의게죄를미로리오또석어버이님종에
 쇼랑으로그덕를맛젓거늘미참내흔인도못흥
 고그덕논이의두주식이이시니죽은돌무어솔
 흥흥리오흥니태슈듯고나라히주문흥대런저
 죠셔흥여특별이죄를샤흥시고다비단을주시
 고고을로블러쓰라흥시다

楊氏義讓

南北朝北魏



楊播弘農人與弟春津並敦義讓昆季相事有如父子兄弟朝則聚於廳堂終日相對未曾入內有一美味不集不食廳堂間往往幃幔隔障為寢息之所時就休偃還共談笑春年老曾他處醉歸津扶持還室仍假寢閣前承候安否春津年過六十並登台鼎而津尚朝暮參問子姪羅列階下春不命坐津不敢坐春每近出或日斜不至津不先飯春還然後共食食則津親授匙筯味皆先嘗春命食然後食春在京宅每有時味輒因使次付之若或未寄不先入口春每得所寄輒對之泣下一家之內男女百口總服同爨

庭無間言

詩楊家義讓篤天倫昆季儼如父子親一味共分相對笑藹然和氣滿堂春 六秩聯登位鼎司平生義敬老何衰朝朝參問情無倦扶醉兄歸弟授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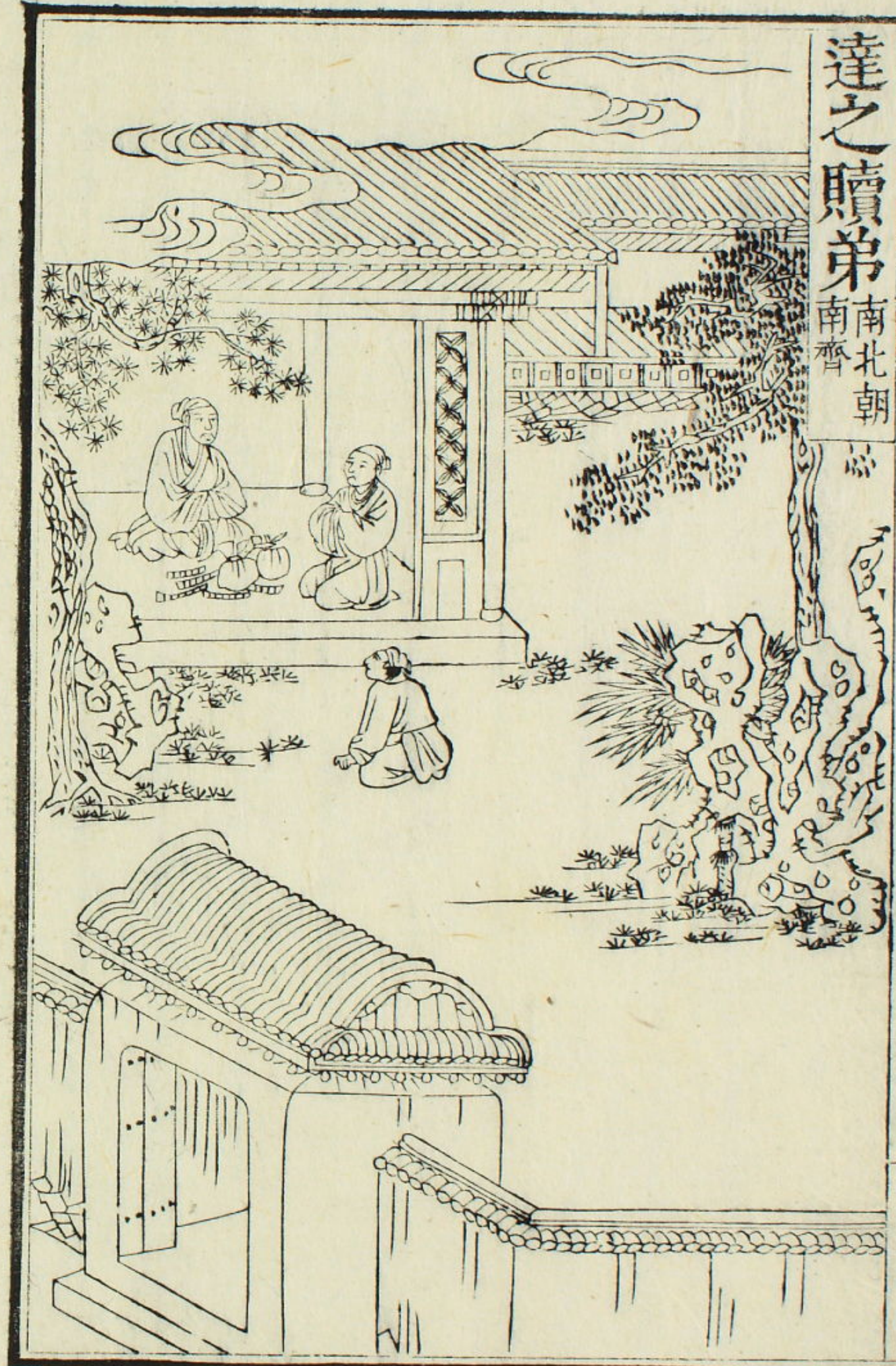
양과논위나라 흥농사름이니그아으춘과진으 로더브러서로섬기미부즈마트여아참이면형 데대청에모히여종일토룩상디흥여안흐로드 러가디아니흥고조흔음식이이시매못디아니 면아니먹고대청스이에당을마리와혈소를민

드라혹가셔쉬다가도로와훈가더로담쇼하고
춘의나히늬은후에나갓다가취하여도라오면
진이붓드러방에드리고인하여창밖괴셔자다
가술써기롤기드러문안하고춘과진이나히늬
심이더나고다지상벼슬에올라시되진이오히
려요석으로문안홀서즈질들은섬아리나렬고
고춘이안즈라아니하면진이감히안셔못하고
춘이미양갓가이나갓다가혹져므도록오디아
니하면진이밤을먹디아니하고춘을기드러먹
으며춘이밤먹을새면진이친히술과저롤맛드

러드리고음식을다몬져맛보며춘이먹으라호
후에먹으며춘이셔울집의이실새에진이혹시
절음식을어드면든드인편에부쳐보내되춘의
게보내디못하면몬져입에너티아니하니춘이
미양진의보낸거술보면디하여눈물을누리오
니훈집안에남녀빅귀식북지천사지훈디밤지
어먹고스이에다른말이업더라

達之贖弟

南北朝南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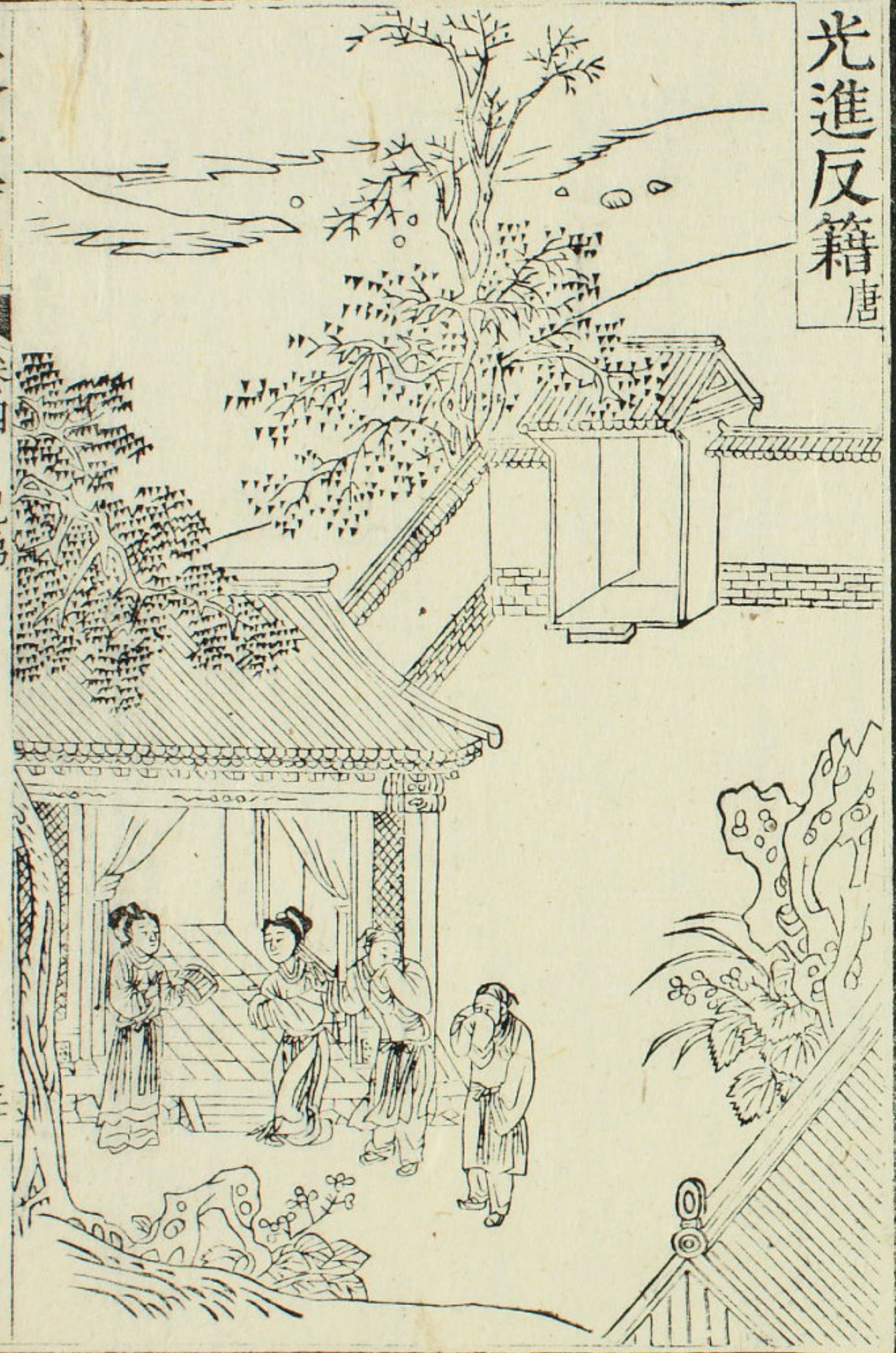


吳達之義興人從祖弟敬伯夫妻荒年被略賣江北
 達之有田十畝貨以贖之同財共宅郡命爲主簿固
 以讓兄又讓世舊田與族弟弟亦不受田遂閑廢
 詩那堪骨肉沒輿僿破產還收與共財職讓於兄
 田讓弟天倫外物視塵埃 賣業慇懃贖弟還同
 財共宅任飢寒世間無限爭田者聞却高風定汗
 顏

오달지는제나라의흥사름이니늑촌아으경빅
 의부체흥년을만나먼사히풀넛거늘달지밭찰
 곡라드리고사내여지물과집을헌가지로흥며

고을에서 달지를 주부 벼슬을 흥이 니 달지 그 형
의게 사양하고 또 냇밭을 사양하여 족테를 주니
그 아이 또 훈바디 아니 하여 버린 바티 되니라

光進反籍 唐



李光進鷄田人事親有至性母歿居喪三年不歸寢
弟光顏先娶而母委以家事及光進娶母已亡弟婦
籍貲貯納管鑰於媣光進命反之曰婦逮事姑且嘗
命主家事不可改因相持泣乃如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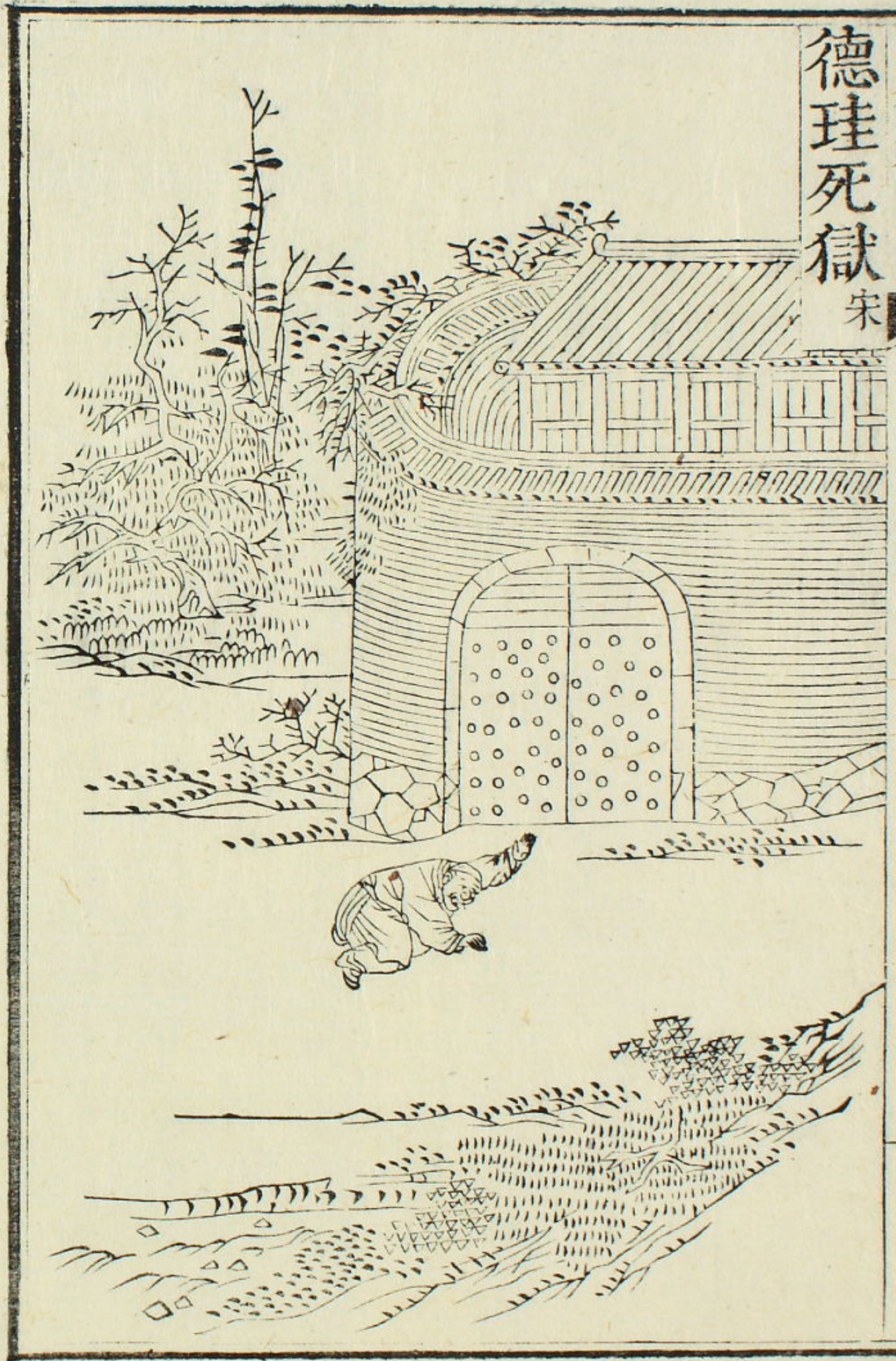
詩當年新婦拜姑前主饋辛勤久且專今日母亡
那忍改泣還家籍故依然 萬古天倫終不泯乖
離只在利鎬銖欲知兄弟相安處須看斯門反籍
圖

니 광진은 당나라 계전사름이 니어 버이 섬기믈
지 효로 하더 니어 미죽으매 거상삼년에 침실의

도라가 디아니 하더 라아으 광안이 몬져 당가드
니어 미가 스를 다 맛졌더니 미 광진이 당가 들제
어미의 죽어 시니 광안의 체지 산문셔와 자믈
쇠를 다 광진의 처를 주니 광진이 봉하 여 도로 주
고 존오 디 제쉬 일즉 모친을 섬기 고가 스를 맛져
겨시니 고쳐다 못하 리라 하 고인하 야 형테 붓들
고우러 어미이 실새와 고쳐하 더라

王倫行實圖
德珪死獄

宋



鄭德珪浦江人與弟德璋孝友天至晝則聯几案夜則同衾被德璋素剛直為仇家陷以死罪當會逮揚州德珪哀弟之見誣乃陽謂曰彼欲害吾也何預爾事我往則奸狀白爾去得不死乎即治行德璋追至道中兄弟相持頓足哭爭欲就死德珪計沮其行夜將半從間道逸去德璋復追至廣陵德珪已死於獄德璋聞之慟絕者數四負骨歸葬廬墓再碁每一悲號烏鵲皆翔集不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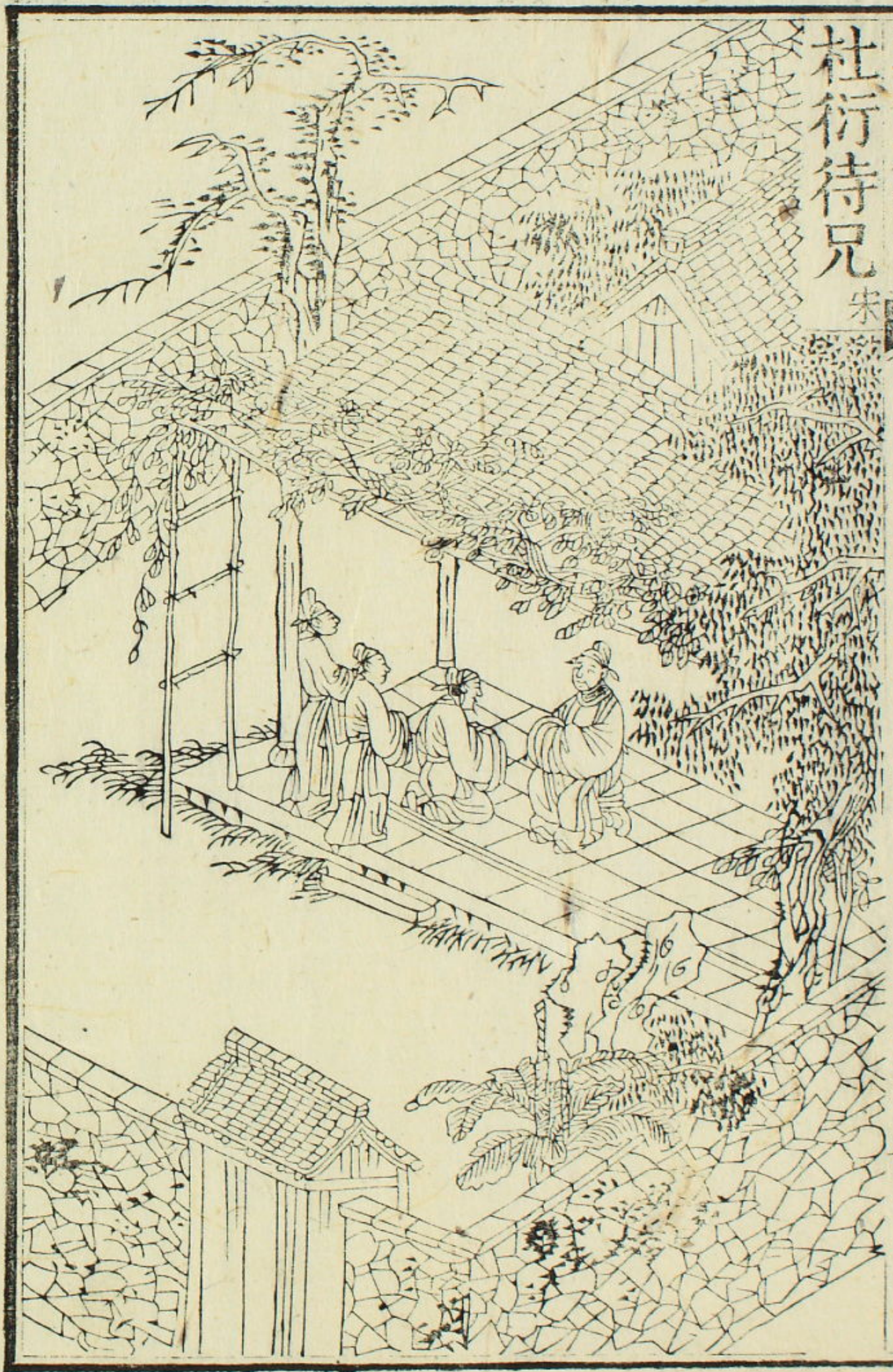
詩同衾聯几每相須不意剛剛陷罪誣視死如歸爭就獄牽畱道上泣相扶夜半潛歸死獄中廣

陵追至慟何窮再葺廬墓哀號處烏鵲飛翔慰怨衷

딩덕규는 송나라 포강사림이니 아○덕장으로
더브러 효위지극함 여났이면 상을 년함 여 안
며 밤이면 나 불을 훈가지로 함 더니 덕장이 본디
강직함 디라 남의 게 무함 훈배 되여 죽을 죄로 갓
치게 되엇거늘 덕궐아의 무죄함 불상이 너겨
덕장드려 거 죽닐러 곧 오디 제 날을 해함 고져함
미니 내가 면저의 간상을 폭씩 함 리라 함 고 죽시
길을 출여 가니 덕장이 동노의 석라와 형태서로

붓들고 울며 죽기 뵈듯 돌시 덕궐아○를 못오게
함 여 밤이 길은 후에 스이 길로 차자 만이 드라
나니 덕장이 또 석라와 광능사히 나르니 덕궐이
의 옥에 서 죽은 디라 덕장이 이 말을 듯고 통곡함
여 여러 번 괴절함 다 가 덕규의 죽음을 지고 도라
와 못은 후에 무히 돌슈 묘함 니 미양 슬피 울면 가
막가치니라 와 가 디아 니 함 더라

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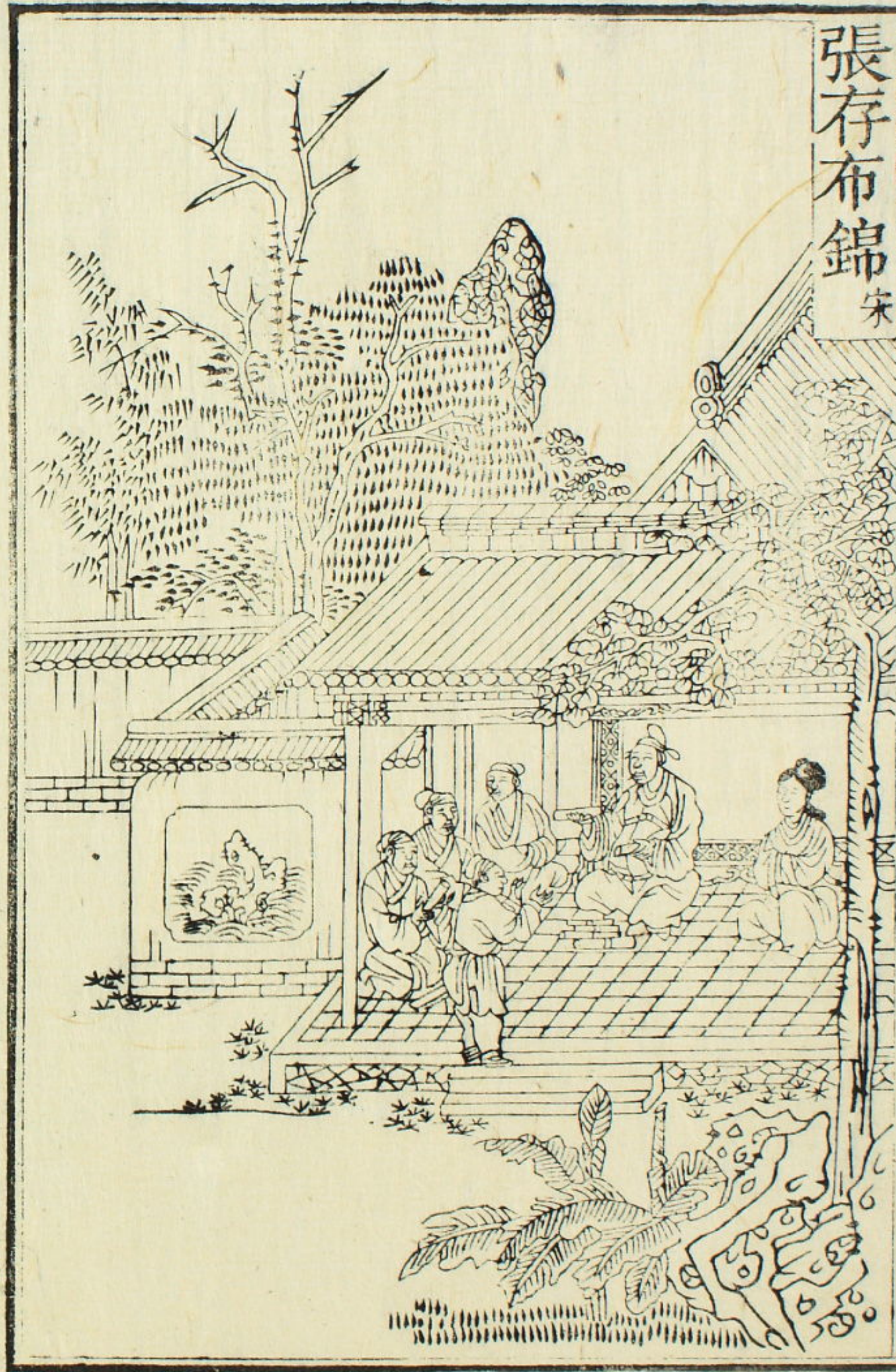


杜衍山陰人前母有二子不孝悌其母改適河陽錢氏祖母卒衍年十五六二兄遇之無狀至引劍斫之傷腦出血數升其姑匿之僅以得免乃詣河陽歸其母繼父不容來孟洛間貧傭書以自資及貴其長兄猶存待遇甚有恩禮二兄及錢氏姑子孫受衍蔭補官者數人仍皆為之婚嫁

詩兄心無狀母歸人引劍殘傷骨肉親出血數升無疾怨烝烝終化兩頑嚚天心福善理昭明豈為傭書致顯榮不獨子孫多受蔭一門婚嫁亦能成

두연은 송나라 산음 사람이니 전모의게 두아들
 이이시되어 지디아니하고 그어미는 하양에 있
 는 전서의게 리가 하니라 조외죽으매 연의나히
 열다섯인제 두형이사오나 이디 접흥여갈로마
 리를티니 피두어되 흐르거늘 그고외 숨겨 계요
 사라나 하양에 어미게 가니 계뷔 어미리가 호
지아비라 용남
 디아니 커늘 놉의 삭글시를 써주고 계요 주성흥
 더니 그후 벼솔이 놉흥매 못형이 오히려사라 잇
 는 디라 디 접흥을 지극히 하고 두형과 고모와 계
 부의 주손들이 연의 음으로 벼솔은 재여러 사람

이오연의 다훈인하 여주니라



張存冀州人性孝友嘗爲蜀郡得奇繒文錦以歸悉
 布於堂上恣兄弟擇取常曰兄弟手足也妻妾外舍
 人耳奈何先外人而後手足乎收卹宗屬嫁聘窮嫠
 不使一人失所家居矜莊子孫非正衣冠不見

詩稟性於天篤友于從來不復念妻孥相懷只見
 連枝重堂上文繒盡向輸 手足何如外舍人肯
 先家室後天倫收卹孤嫠婚嫁畢誰能似子篤親
 親

당존은송나라기유사람이니런성이효도롭고
 우의하더니일즉축군에원을하여갓다가김과

비단을어더도라와다당우히퍼노코형테로호
 여곰모음대로존히여가지라호고미양닐오디
 형테는손과발긋고쳐첩은놈의집사름이니엇
 디놈의집사름을몬져호고손발을후에호리오
 호고종족을거두어양가드리고셔방맛쳐호사
 림도의디업게아니호고집안에이실제거동이
 업텨호니조손이의관을바르디아니호면뵈디
 못호더라

彥霄析籍 宋



趙彥霄兄弟二人同爨十二年兄彥雲惟聲色博奕是娛生業壞已逾半彥霄諫不入遂求析籍及五年而兄之生計蕩然矣公私逋負尚千餘緡彥霄因除夕置酒邀兄嫂而告之曰向者初無分爨意以兄用度不節恐皆蕩盡俱有飢寒之憂今幸畱一半亦足以給伏臘兄自今復歸中堂以主家務即取分書付之火管鑰之屬悉以付焉又以已儲錢償其所逋負兄初有慚色不從不得已而受之次年彥霄一舉登第鄉人大敬服之

詩同爨曾經一紀餘可憐家業漸蕭疎無端析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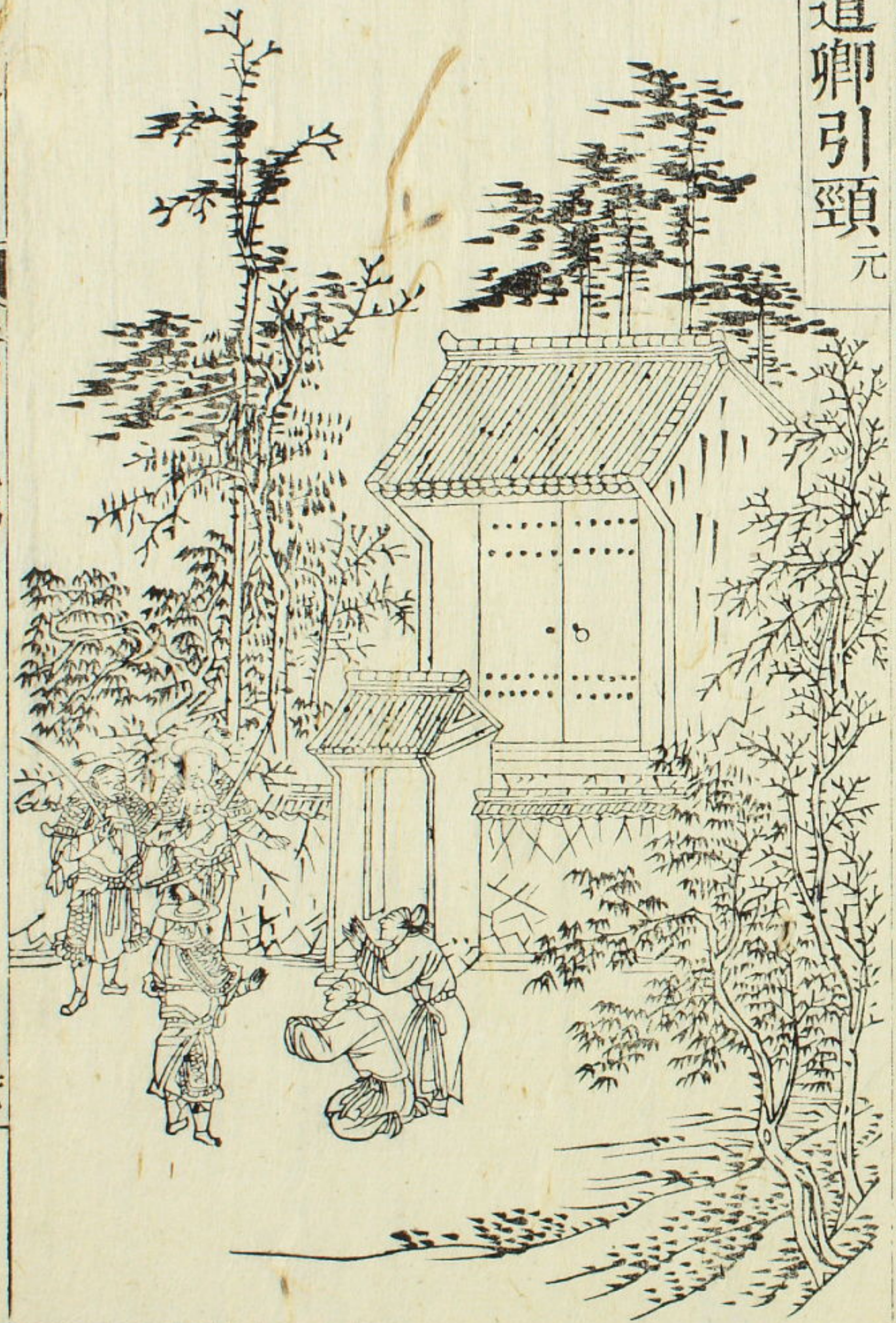
兄應恠丹懇他年見火書 兄蕩家資弟析居五年贏得有遺儲慇懃更酌元宵酒從此阿兄復主

廬

도언쇼는송나라사람이니형테열두히를훈디
밥지어먹고사더니그형언운이성식과잡기를
즐겨가산이점점과하니언쇠간호디듯디아니
커늘드디여가산문셔를논화가지고각각먹고
있더니다소히만의형의싱계이의랑진하고공
소의빛이천여금이라언쇠제석 섯돌그름
날이라 을인하
여술을마초고형수를청하여닐오디내본디분

저흐의시업스되형이지물쓰기를존절티아니
흐니두리건대인흐여탕진흐여귀한을면티못
흐가흐미러니이제내가산이오히려반이이시
니족히명일에쥬식은 γ 출디라오늘부러형이
다사덩당의이셔가스룰쥬장흐게흐라흐고즉
시분지흐던문셔를가져불에솔오고여러열쇠
를다형수의게맛디고또져축흐엇던돈을내여
형의빚을다갹흐니그형이붓그려흐다가마디
못흐여바드니라그이듬히에언쇠급테흐니일
향사롭이다탄복흐더라

道卿引頸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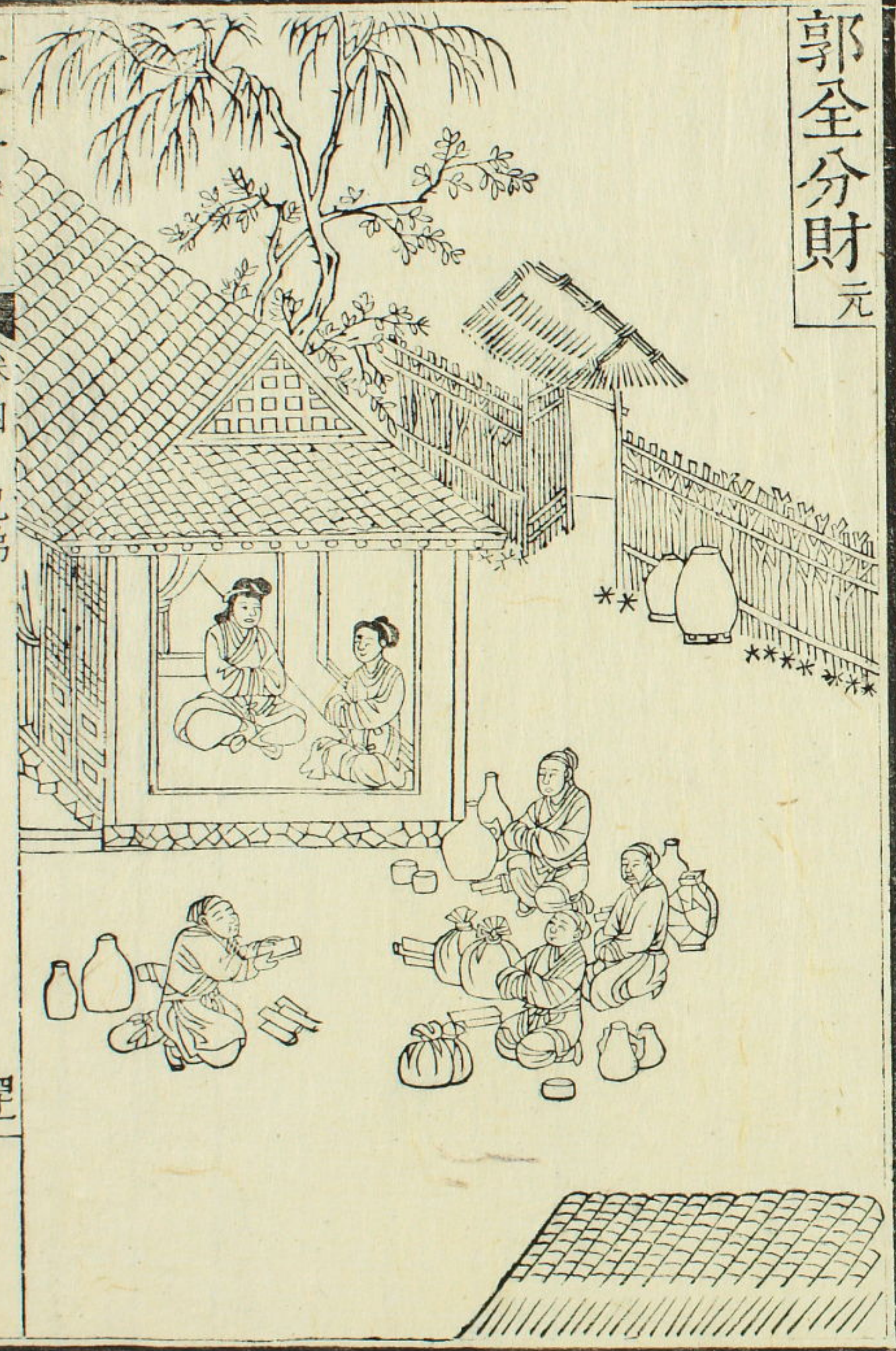
郭道卿莆田人四世祖義重以孝行著鄉里爲立孝子祠元初盜起居民多走匿道卿與弟佐卿獨守祠不忍去俱被執盜將殺佐卿道卿泣告曰吾有兒已長弟弱子幼請代弟死佐卿亦泣曰吾家事賴兄以理請殺我道卿固引頸請刃盜相顧曰汝孝門兄弟若此吾何忍害兩釋之

詩居民畏盜競逃奔獨守先祠只弟昆孝行固知天所與肯教兇豎害元孫 弟兄爭死意堪悲賊膽還寒引頸時兩釋只緣誠孝感芳名傳世永無期

막도경은원나라보전사름이니그고조의등이효행으로일흠잇더니밋죽으매향나사름이효조소를세워제하더라그후도적이니라백성이다드라나되도경은홀로아으좌경을드리고스당을드키희여차마가디못하다가도적의게잡히여장차좌경을죽이려하니도경이울며비러골오디나논자란조식이잇고아으는병약하교또조식이어리니청컨디아으를디신하여죽어디라훈대좌경이또울며골오디내형이아니면가소를엇디다슬이리오청컨대날을죽이라도

경이 또 목을 들은의 허버히물청하니 도적이 서로
도라보와 곧오디너희는 효주의 집사롬이 오형
테또이러듯하니 우리엇디 차마해하리 오하교
형테를다노하보내더라

郭全分財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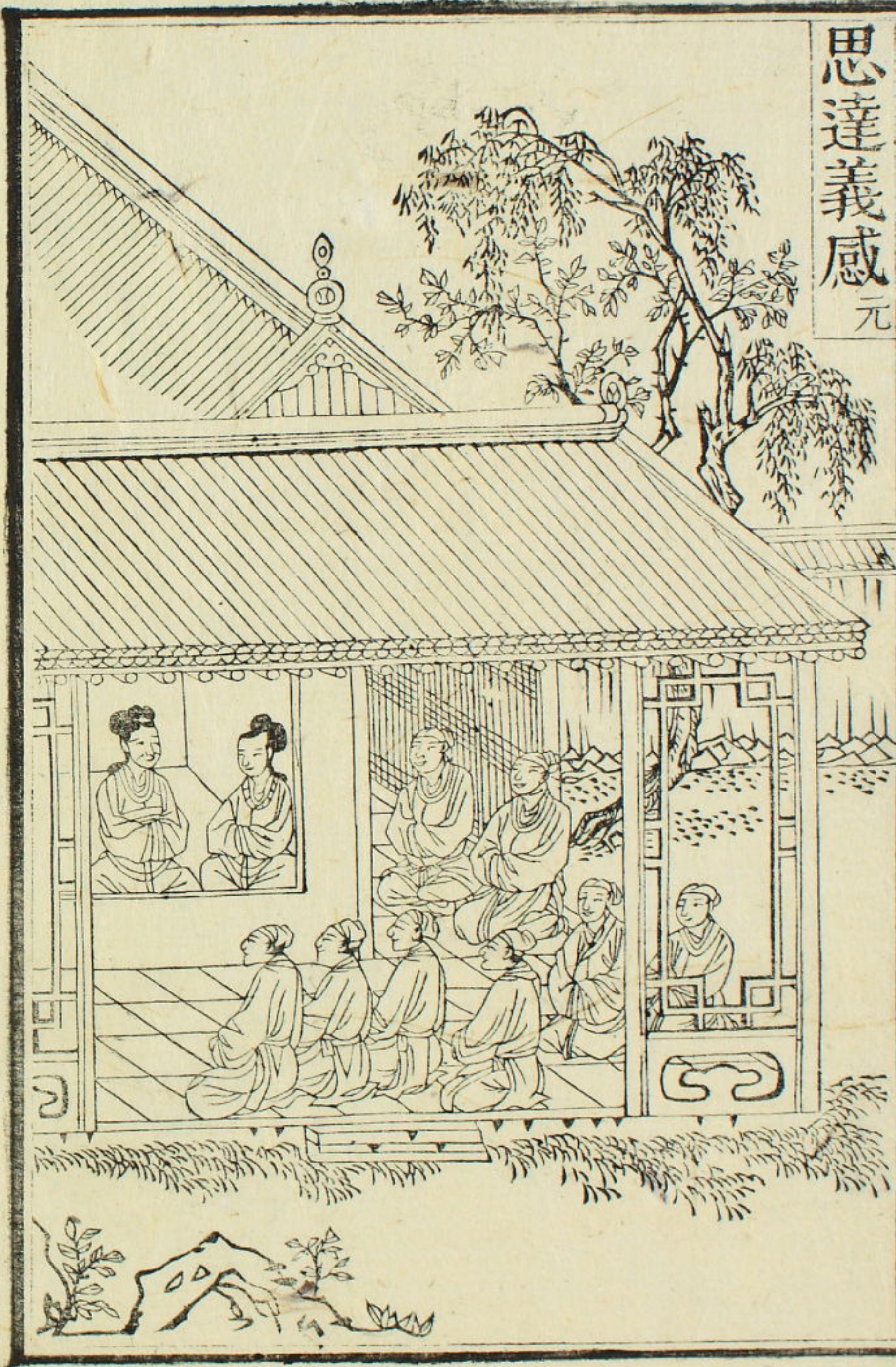
郭全遼陽人事繼母唐古氏甚孝繼母生四子皆幼
全躬耕以養既長娶婦各求分財異居全不能止凡
田廬器物自取荒廢朽敗者奉唐古氏以居甘旨無
乏

詩喫著艱辛共備嘗一朝分異可堪傷薄田破器
吾當取甘旨無違奉後孀 薛包孝義世稱賢豈
料君身更兩全青史昭垂名不泯又從圖畫上新

編

곽전은원나라노양사름이니계모당고시를지
성으로섬겨계모네아들을나하다어린디라전

이몸소밭가라먹이더니임의당성하여안히를
어드매각각분지하여씩로사라디라호대전이
말니더못하여전릭귀물의남고엇지아닌거손
스스로가저계모를밭들고이셔감지를권함음이
업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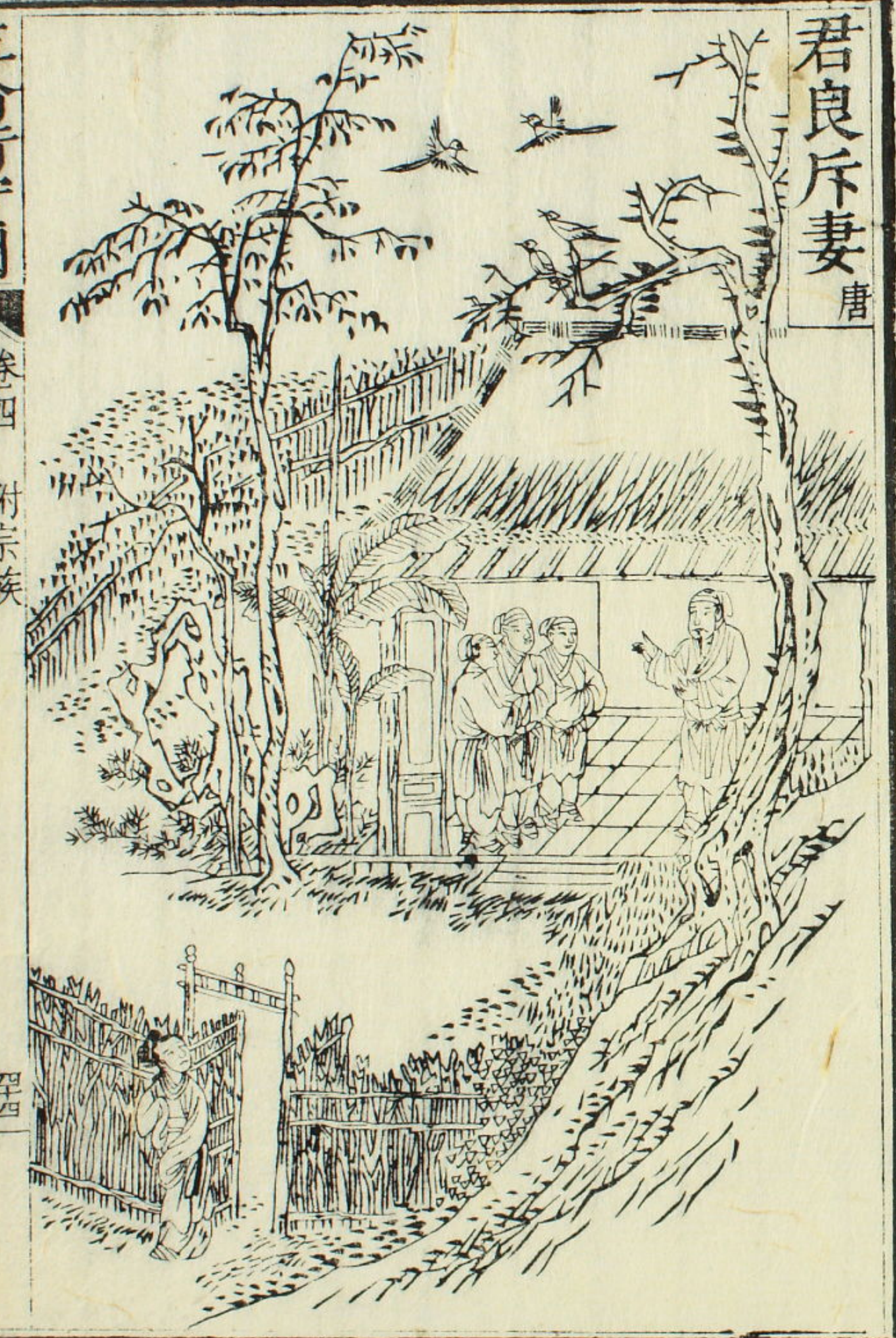
吳思達蔚州人兄弟六人嘗以父命析居思達爲開平主簿父卒還家治葬畢會宗族泣告其母曰吾兄弟別處十餘年矣今多破產以一母所生忍使兄弟苦樂不均耶卽以家財代償其逋更復共居不數年宅後榆柳爲之連理人以爲友義所感焉

詩曾承嚴命各分居憂樂參差十載餘泣告慈親辭感激弟兄和氣塞窮閭一體而分六箇身悲歡饒瘠豈宜偏捐財償債還相聚榆柳終看理亦連

오스달은원나라을쥬사름이니여스형테일즈

아비명으로 각각 사더니 스달이 지평쥬부벼슬
 을 승엿다가 아버죽으매 집에 도라와 상장을 드
 촌 후에 스달이 종족을 모호고 울며 그 어미게 고
 하여 곧 오디 우리 형테셔 나이 셤디 심여 년이 러
 니 이제 형테 둥에 가 산을 파 하니 만흔 디라 엿디
 차 마흔 어미 소성으로 고락이 고로 디아 니 케
 리 오호고 즉시 지물을 기우려 형테의 빗을 갑고
 다시 혼집의 모히여 사더니 두어히만의 짐뒤희
 버들과 느름 남기년 리쉬되니 사름이 다 날오디
 우이호응험이라 하더라

君良斥妻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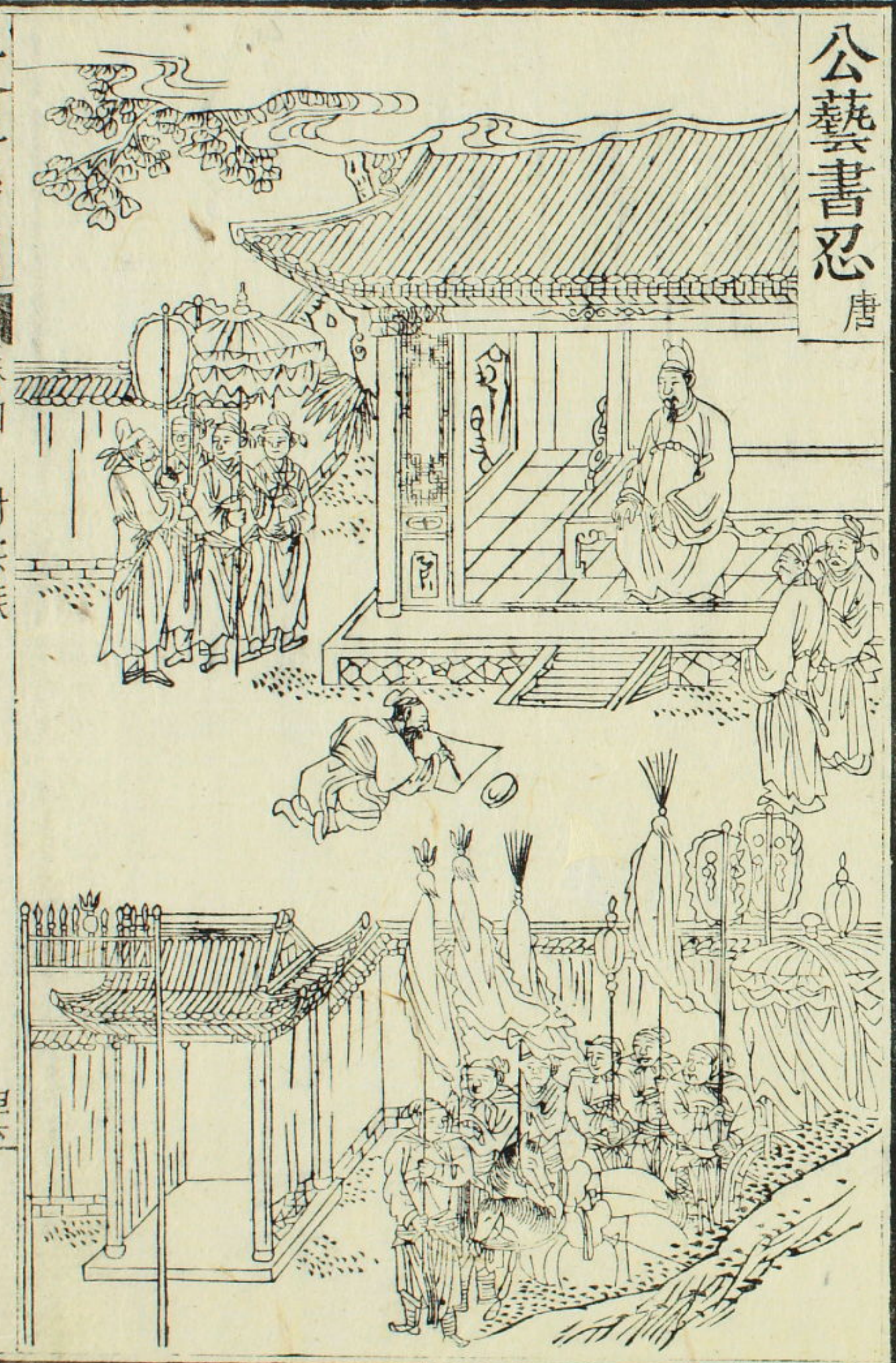
劉君良饒陽人四世同居族兄弟猶同產也門內斗粟尺帛無所私隋大業中荒饉妻勸其異居乃易置庭樹烏雛令鬪且鳴家人恠之妻曰天下亂禽鳥不相容况人耶君良卽與兄弟別處月餘密知其計因斥去妻曰爾破吾家召兄弟流涕以告更復同居貞觀六年表異其門閭

詩世同產業更同居四代相傳不少疎一婦邪謀寧間我終教兄弟復如初 斗粟其誰敢自私要同門內給寒飢滔滔好貨私妻子視此如何不忸怩

뉴군냥은당나라요양사람이니스덕을호집의사라촌수먼형데도동싱긔티호여집안의호말곡식과호자비단이라도스스로이호는배업더니흥년을만나니군냥의안히군냥을권호여사로서라디라호고이에만이쓸에섯는나모우히가마귀삿기를밧고아두어호여곰서로빠화을게호니집사람이피이히너기거늘군냥의체글오디련히어즈러오매새증싱도서로용납디못호거든호블며사람이야닐러무엇호리오호대군냥이즉시형데와사로서더니호들남즉호

여군냥이 그쳐의 계교에 속은 줄 알고 쳐를 내티
며 곧 오더네 엇더내 짐을 그릇되게 하느뇨 하고
형테를 불러 눈물을 흘리며 전후스연을 다닐으
고 다지훈가지로 이시니 후에 나라히 그 짐을 정
문하니라

公藝書忍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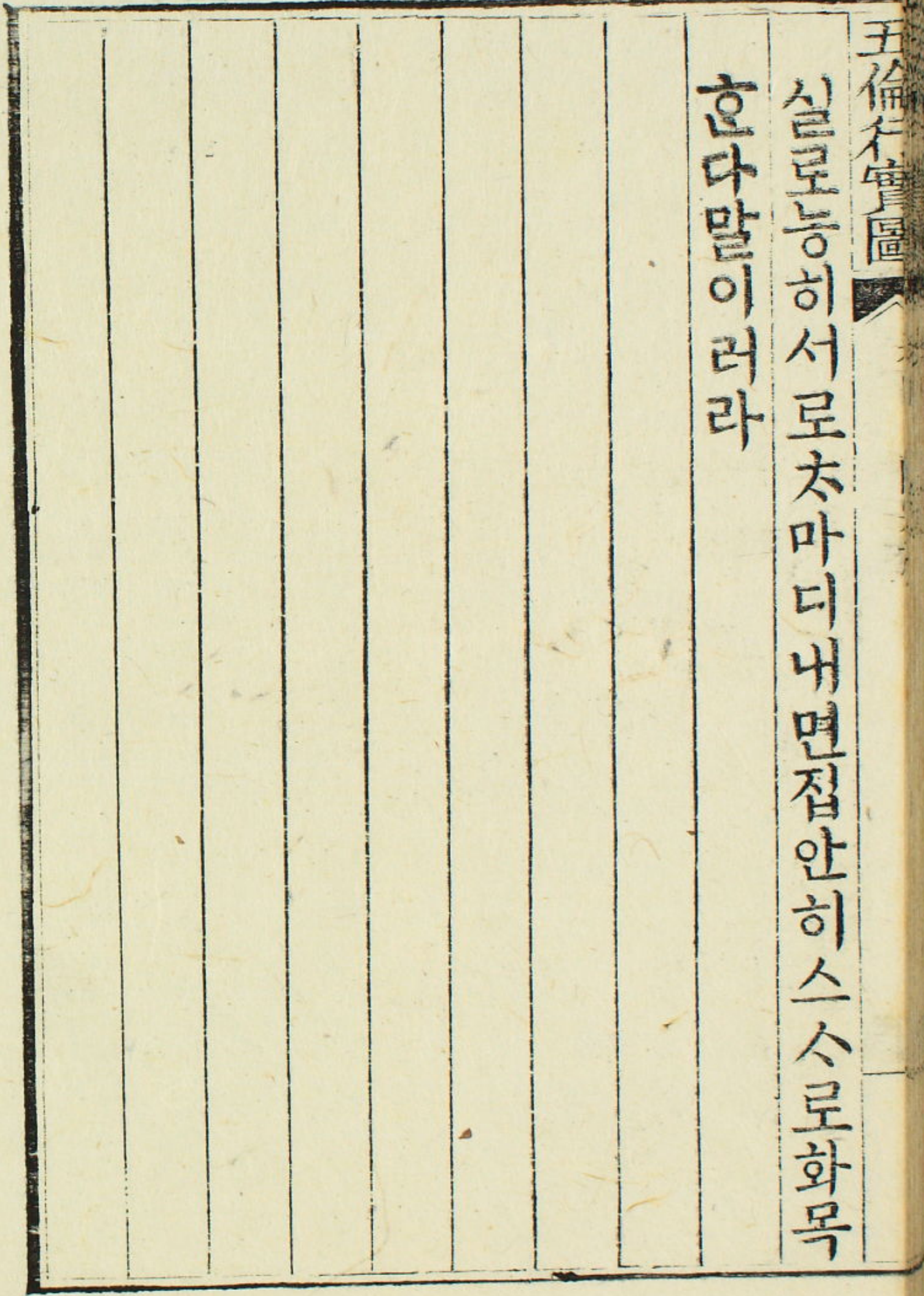


張公藝壽張人九世同居北齊隋唐皆旌表其門高宗封泰山幸其宅召見公藝問其所以能睦族之道公藝請紙筆以對乃書忍字百餘以進其意以為宗族所以不協由尊長衣食或有不均卑幼禮節或不備更相責望遂為乖爭苟能相與忍之則家道雍睦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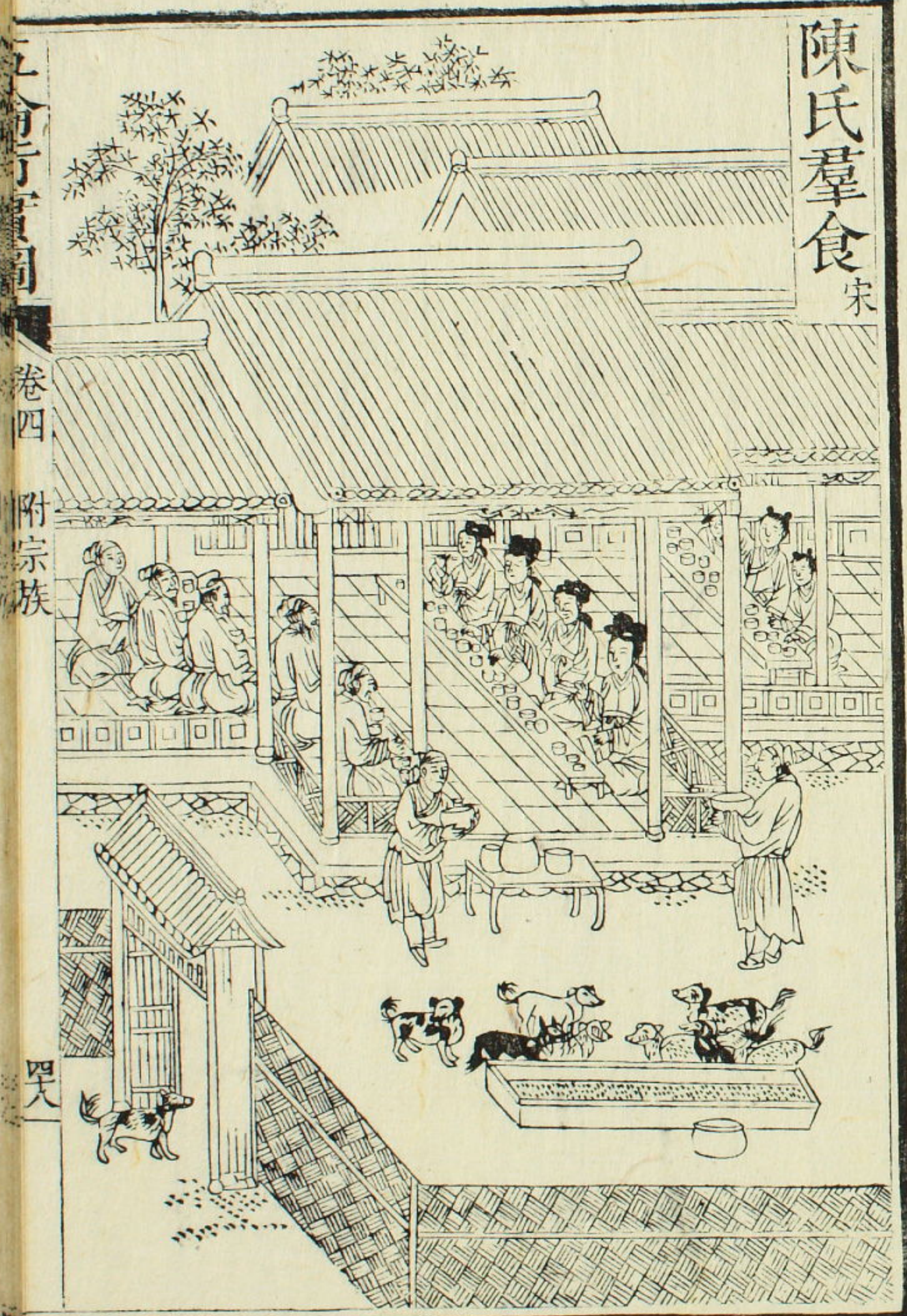
詩世人分割不同廬獨有張公九世居帝問由來能睦道但將忍字百來書 禮嚴卑幼缺應頻尊長衣飧或未均忍不出言相責望怡怡家道自相親

당공예는 당나라 슈장사 례이니 조상브터 구덕
를 훈가지로 사니 그후 여러 나라 흘디 내되 다 그
집을 정표하엿더니 당나라 고종 황제 태산에 봉
선 님군의 공덕을 사 거 명
산에 감 초는 일이라 하시고 오시다가 그 집에 남
샤 공예를 불러 무르시되 무슴도 리로 능히 이러
트시 종족을 화목하게 하느다 공예 도희와 부슬
청하 여 촌물인 밤일 빔을 써드리니 대개 그 뜻은
종족이 불화하 미미 양어 룬이 의식을 후고 로디
아니 게 하 고 느즈니 와 어 린이 네 절을 부족히 하
면 인하 여 서로 칙망하 여 뜻도며 틈이 나느니 진

실로 능히 서로 타마디내면 집안히 스스로 화목
흐다 말이라



陳氏羣食 宋



五倫行實圖

卷四

附宗族

四六

陳兢居江州十三世同居長幼七百口不畜僕妾上下媿睦人無間言每食必羣坐廣堂未成人者別爲一席有犬百餘亦置一槽共食一犬不至羣犬皆不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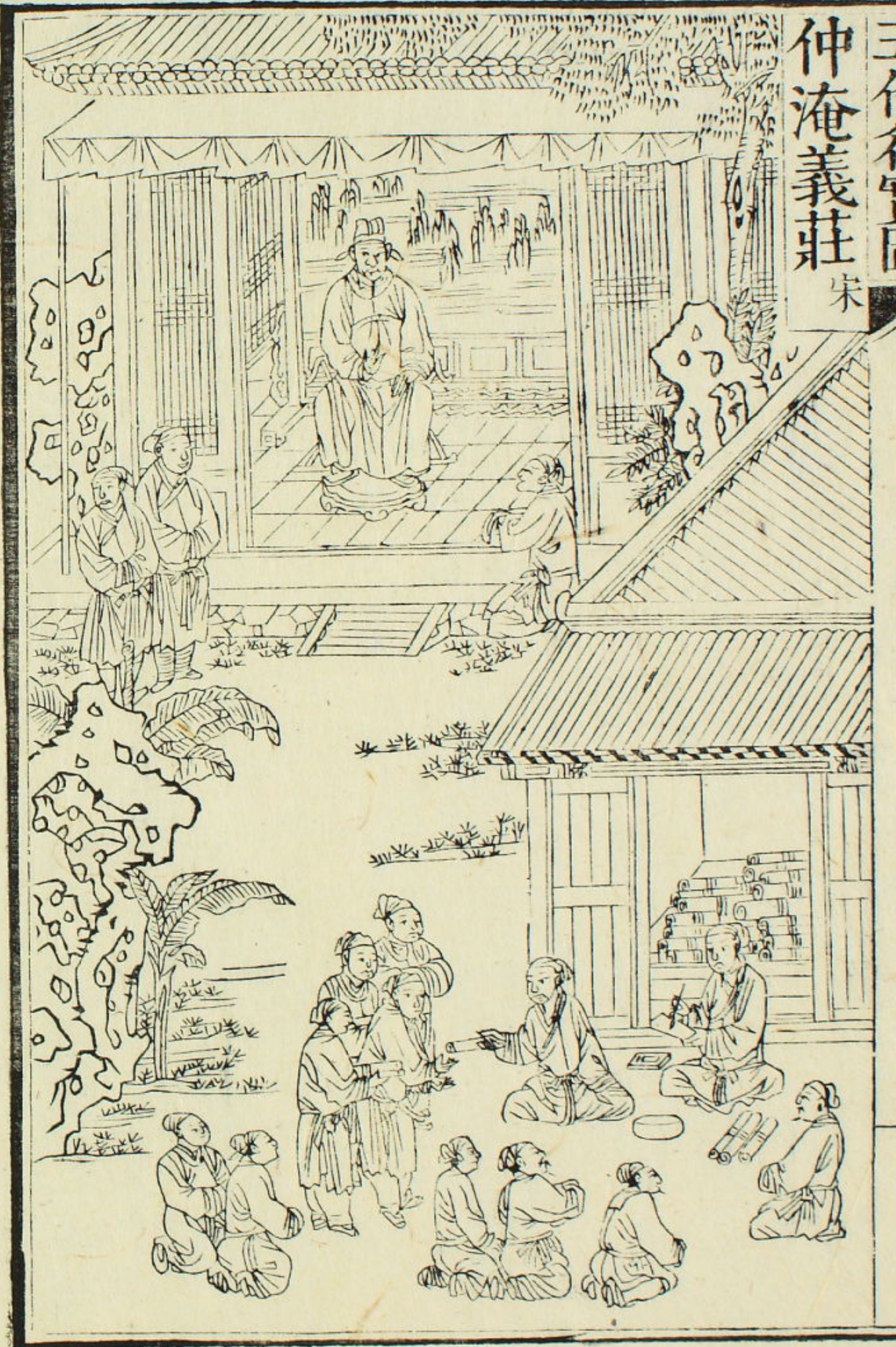
詩七百餘人未忍分高曾叔姪暨仍雲十三嗣世同炊爨每食長筵列作羣 敦睦家風世所崇 誥長幼一堂中欲知感化冥冥理看取槽中百犬同

진공은 송나라 사림이니 강유사히사라 십삼대를 훈가 지로이셔 집안 사림이 칠백 귀라 복첩을

두디 아니하고 상해 화목 하여 스이에 다른 말이 업고 미양 밥 먹을 적이면 너른 집의 모히여 안쇼 어린 아히 들은 색로 훈 자리에 안티고 기르느개 빅여 미리 이셔 쇼 훈 구유에 먹이니 훈 개 못 밋츠면 모든 개 먹디 아니하더라

仲淹義莊

宋



范仲淹吳縣人輕財好施尤厚於族人既貴於姑蘇近郭買良田數千畝為義莊以養羣從之貧者擇族人長而賢者一人主出納人日食米一升歲衣縑一匹嫁娶喪葬皆有贍給自政府出歸姑蘇焚黃搜外庫惟有絹三千匹令掌吏錄親戚及閭里知舊自大及小散之皆盡曰宗族鄉黨見我生長幼學壯仕為我助喜我何以報之哉

詩千畝良田豈自圖盡施宗族遍親疎匹衣升食無他費婚葬相扶亦有餘 庫中搜得三千絹一日親知盡散之聊報鄉閭助吾喜相公會不念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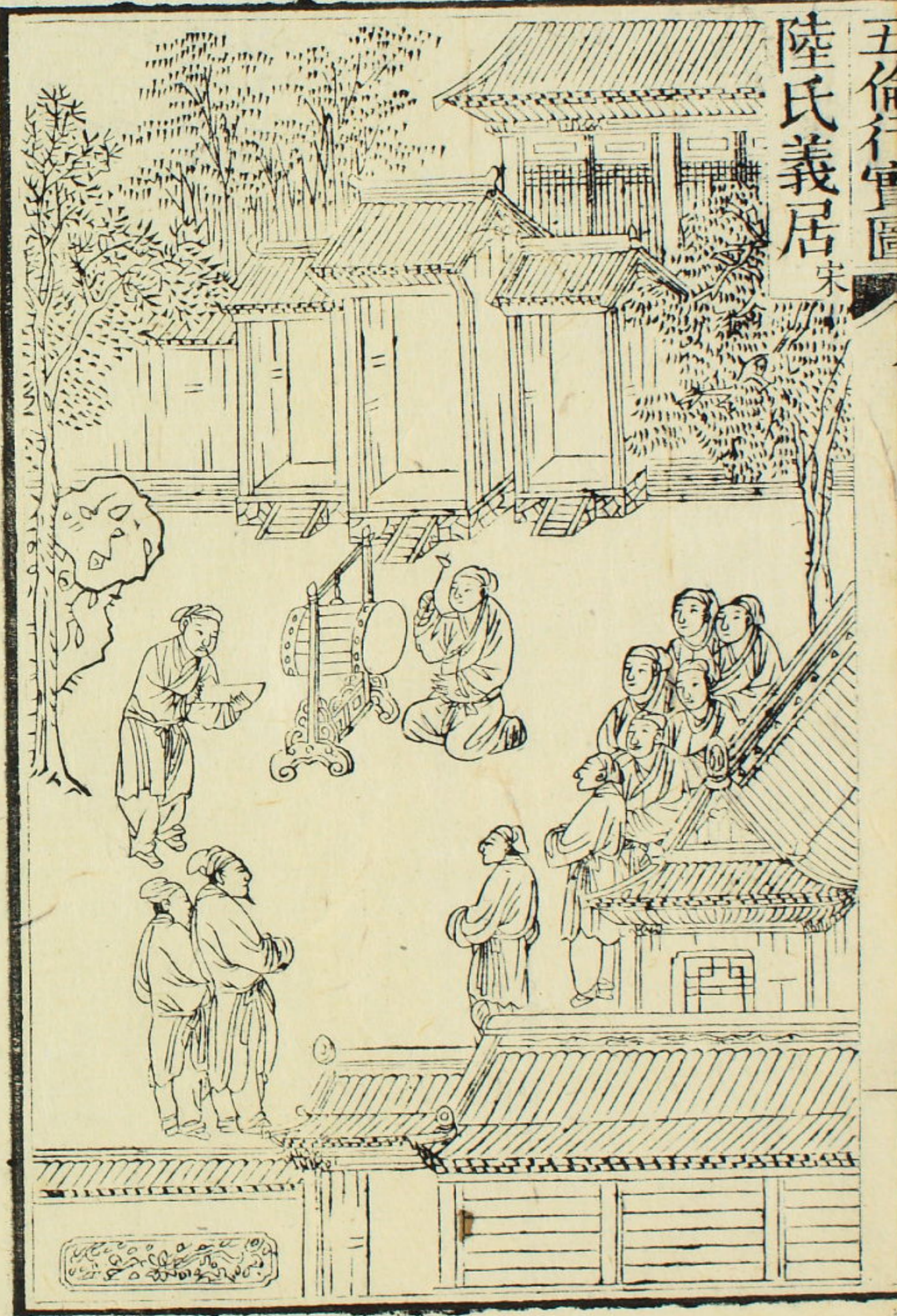
私

범등임은송나라오현사람이니저물을가비아
 이너가고남주기물도화흥며더옥종족의게후
 히흥여벼솔이이의놈흐매집곳가온곳에도흔
 밧수천묘를사두어의장^{의잇는전}을삼아여러가
 난흥겨레를치고겨레등에나만코어던사람흥
 나흥글희여저물을맛디고미인의게날마다쌀
 흥되와히마다김흥필식주고혼인과상스를다
 3초와주고정승벼솔로소분흥려고향에도라
 와밧고에남은김삼천필을다내여맛든사람으

로흥여곰친척과고구를다기록흥여크니와적
 으니를일시에훗터주며골오디종족과향니사
 림이내어려셔브터자라나벼솔흥를보고날을
 위흥여깃부를도와주니내엇디벼갑흥리오흥
 더라

陸氏義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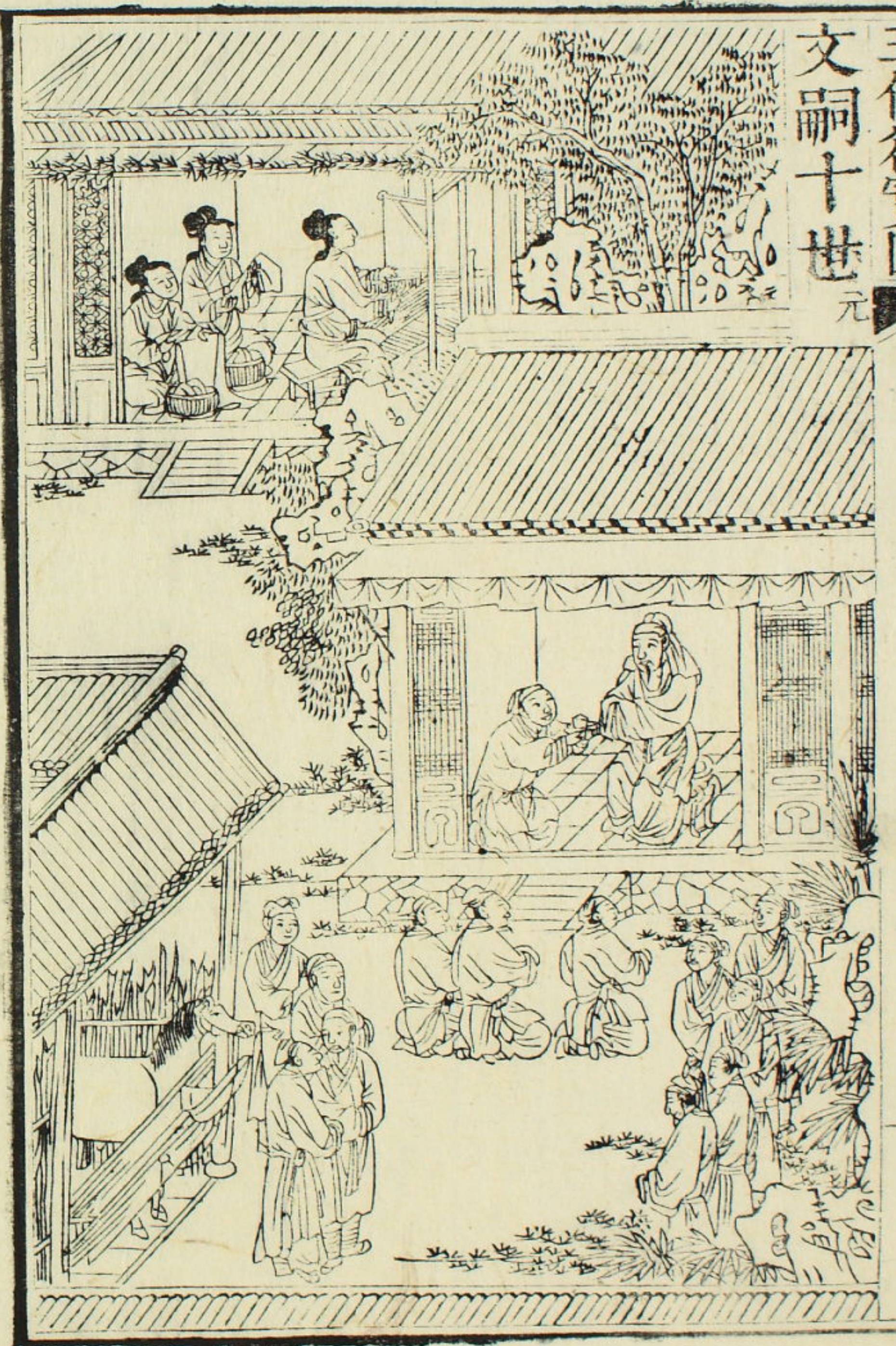
宋



陸九韶金溪人其家累世義居一人最長者為家長
 一家之事聽命焉歲選子弟分任家事凡田疇租稅
 出納庖爨賓客之事各有主者九韶以訓戒之辭為
 韻語晨興家長率眾子弟謁先祠畢擊鼓誦其辭使
 列聽之子弟有過家長會眾子弟責以訓之不改則
 撻之終不改度不可容則言之官府屏之遠方焉
 詩割戶分門薄俗然義居陸氏事堪傳區分職任
 由家長出納承迎禮罔愆 韻語丁寧是訓辭晨
 興擊鼓謁先祠固知有教元無類誰敢將身蹈匪
 彝

육구쇼는송나라금제사람이니누덕률훈까지	로사라그등나만흔사람훈나흔글희여가당을	삼아온집일을다취품훈고히마다즈테를존희	여가소를노화맛저므릇농소와지름출납과음	식훈기와손디점훈노일을다각각맛든재잇고	구외또경계훈노말로글을지어새베닐어나면	가당이모든즈테를거느려소당의현알훈물미	츠매북을올리며경계훈노글을외와즈테로훈	여곰버러서듯게훈고즈테등에허물이이시면	여러즈테를모화쑤디저마르티고고치디아니
---------------------	---------------------	---------------------	---------------------	---------------------	---------------------	---------------------	---------------------	---------------------	---------------------

훈면달초훈고또종시고치디아니훈여용납훈	디못훈리면관가에고훈여먼싸흐로쑤츠브리	터라
---------------------	---------------------	----



鄭文嗣婺州人其家十世同居凡二百四十餘年一
 錢尺帛不敢私文嗣沒從弟大和繼主家事益嚴而
 有恩家中凜如公府子弟稍有過頒白者猶鞭之每
 歲時大和坐堂上羣從子皆盛衣冠鴈行立左序下
 以次進拜跪奉觴上壽畢皆肅容拱手自右趨出見
 者嗟慕余闕為書東浙第一家以褒之大和方正不
 奉浮屠老子教冠婚喪葬必稽朱子家禮而行子孫
 從化皆孝謹諸婦惟事女工不使預家政家畜兩馬
 一出則一為之不食人以為孝義所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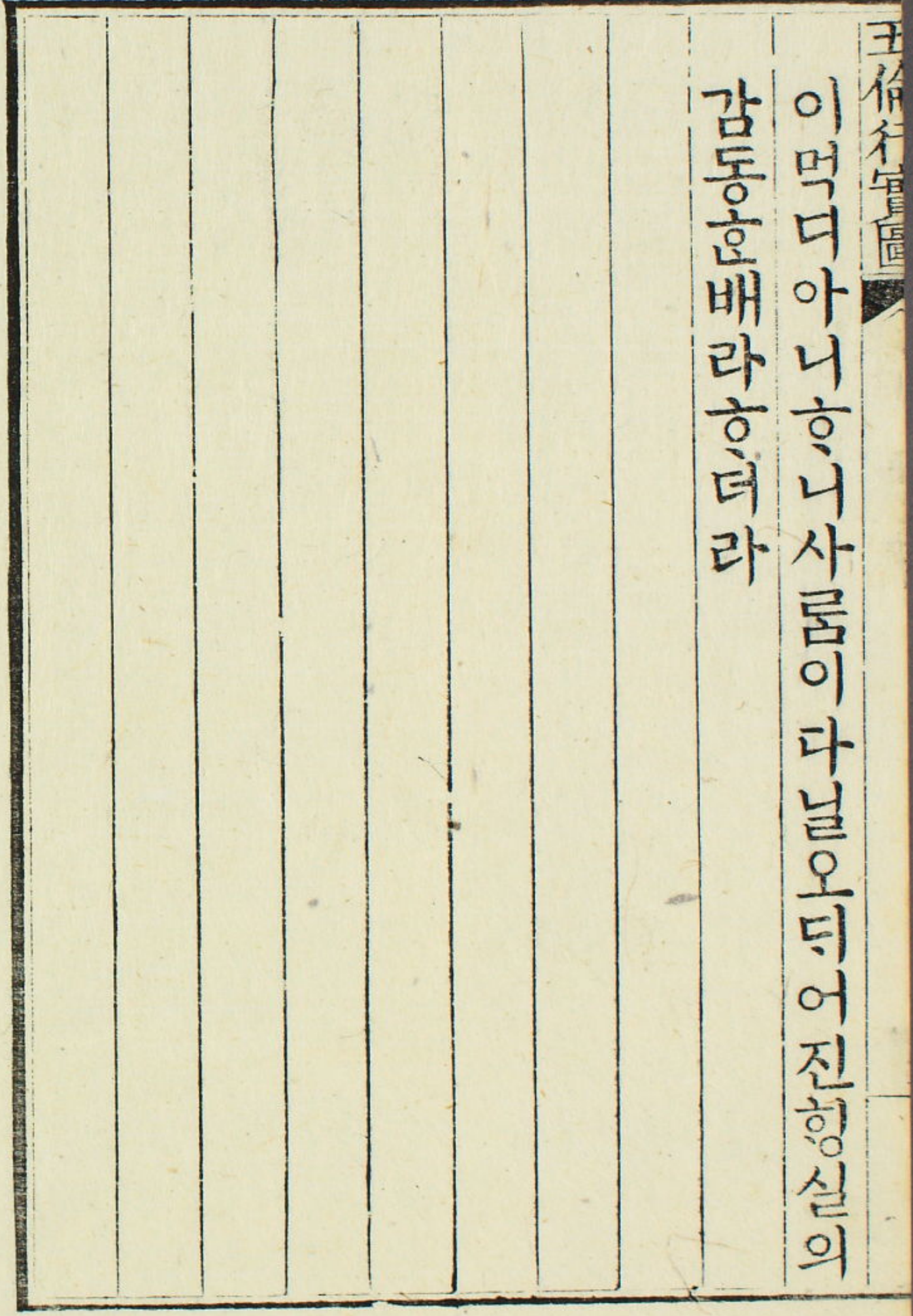
詩怡怡肅肅政連縣十世同居二百年伏臘壽觴

遵禮教傍觀嘖嘖嗟羣賢 家法嚴恩冠浙東不
遵釋老尚儒風諸孫孝謹皆從化畜物雖微亦感
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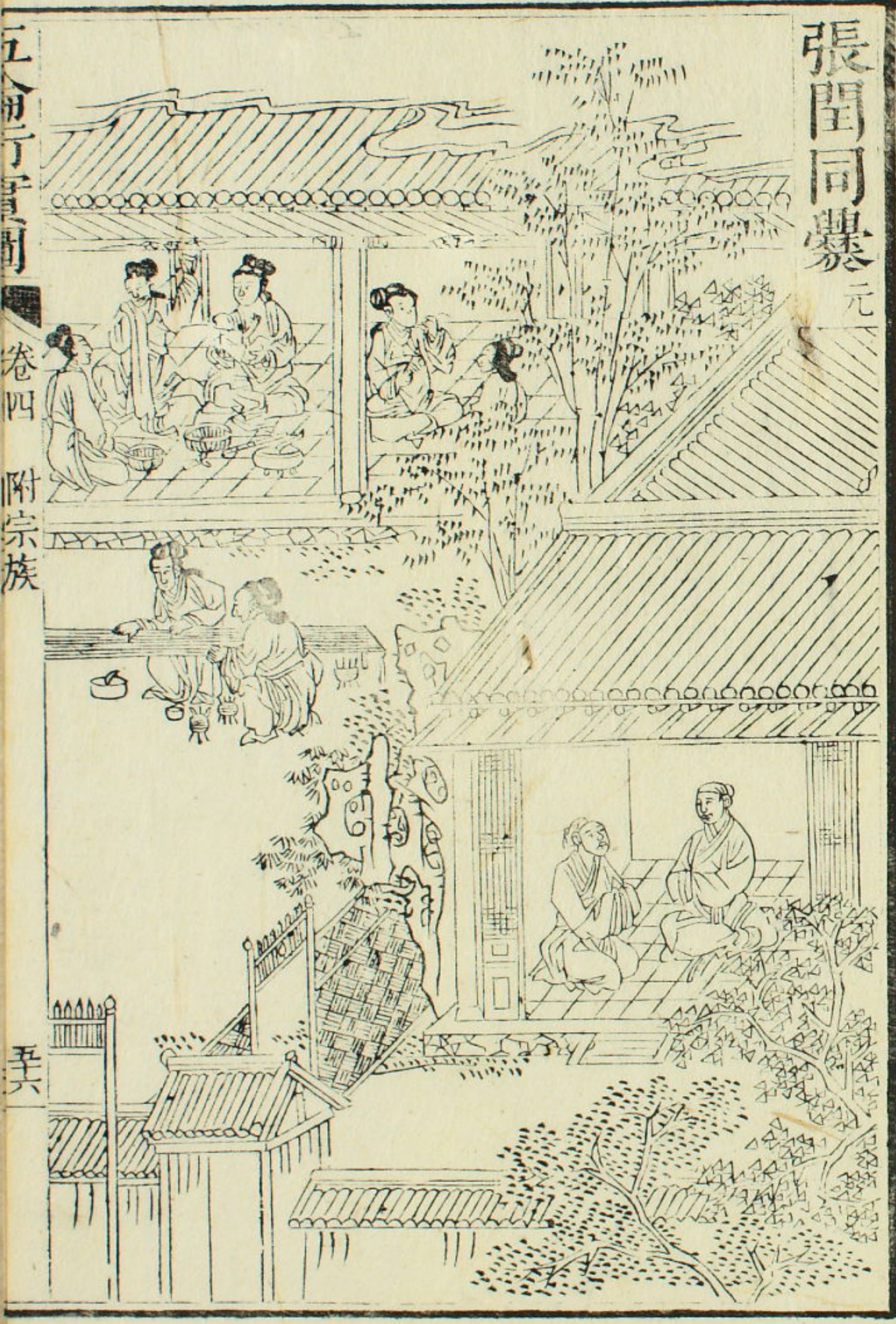
형문스느원나라무쥬사람이니십디를훈가지
로사라이빅스십여년이된디라요고만지물도
스스로이아니하더니문시죽으매스촌아으대
해니어가스를맛다더옥엄호디은혜이시니집
안히엄속하기관가드여주테적이죄패이시
면반빅훈사람이라도오히려매로티고세시면
대해당우희안쇼모든주테는다의관을성히하

여기러기항닐노들좌편의버러섯다가차례로
나아와절하고살어잔을बाट러슈를올리고얼
골을다듬고손을쇼자우편으로추창하어나
갈시보느사람이다차탄하고흠모하니여필이
동절테일가 동절사데 일집이라 다스주테크게베주어포양
하더라대해위인이형대하니외도물숭상티아
니하여훈인과상스를반드시쥬즈가레물조차
니주손이다화하여효도롭고공근하며여러부
인들은다만너공을일삼고가스에간섭디못하
게하더라집의물돌히이셔훈들이나가면훈물

이 먹디아니 하니 사름이 다닐오 디어 진형실의
감동하 배라 하 디라



張閏同爨元



五倫行實圖

卷四 附宗族

五

張閏延長人八世不異爨家人百餘口無間言日使諸女諸婦各聚一室爲女紅工畢斂貯一庫室無私藏幼兒啼泣諸母見者卽抱哺一婦歸寧畱其子衆婦共乳不問孰爲己兒兒亦不知孰爲己母也兄顯卒卽以家事付姪聚聚辭曰叔父行也叔宜主之閏曰姪宗子也姪宜主之相讓旣久卒以付聚至元間旌表其門

詩八世同炊不析居女工勤聚不私儲兒啼見者爭相乳不問阿孃大小姐 已矣兄亡可得追盡將家事付宗兒一門叔姪相推讓高義堪爲後世

師

양윤은원나라연장사람이니여덟덕을얻고의시며집사람이빅여귀로되스이말이업고날마다여러부녀로하여곰흔집에모히여질삼하다가일이막치면흔고에너허스스로이감초미업고어린아히울면여러지어미보는데로안아젓먹이고흔지어미친뎡에든니라갈제그주식을두고가면모든지어미흔가지로젓먹여누아히물뭇디아니하니그아히또흔뉘가제어민줄모로더라운의형이죽으매윤이즉사가스로써죽

하취의게맛디니취소양하여골오디아자비논
아비항넬이라아자비맛당이맛드리이다윤이
골오디너논종지라네맛당이맛드리라하교서
로소양하다가므침내족하의게맛디니후에그
집을정문하니라

五倫行實圖卷第四

